금주의 법구-〈법구경〉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
남의 잘못을 찾기란 쉬운 일이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는 어렵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17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10월 4일)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법난기념관 · 유산센터 불사 '청사진' 나왔다

중앙종회 종책질의서 종단 불사 현황 발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주요 불사인 10.27법난기념관과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조계종 종단불사추진위원회(위원장 원행)와 사회부(부장 성공)는 11월 12일 속개한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 제219회 정기회 종책질의에서 종단 불사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조계종 사회부는 중앙종회의원 우석 스님의 '10.27법난기념관 및 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에서 40주년 행사 개요와 10.27법난기념관 건립사업 현황을 제시했다.

조계종 사회부의 자료에 따르면 종단불사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10.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계획 재수립'을 완료하고 지난 10월 28일 10.27법난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조계종이 제출한 '10.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계획 변경(안)'을 원안 의결했다.

10.27기념관, 기념 · 치유분리
봉은사 · 고양시로 부지 확정
2027년까지 건립 완료 계획

부지 난항 불교유산보존센터
양평읍 공흥리 일원 건립키로
'괘불'보존전문기관 운영 계획

변경된 사업 계획에 따르면 10.27법난기념관은 기념시설과 치유시설로 분리돼 운영된다. 기념시설은 서울 강남 삼성도 봉은사 일원에 건립된다. 연면적은 1만1944평이며, 지상1층 지하6층 규모다. 치유시설 2동은 동국대 일산병원이 인접한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777 일원에 설립된다. 연면적은 2240평 규모며, 지상 4층 지하 1층으로 지어진다.

기존의 토지를 활용하다보니 조계사 인근 부지를 매입해 건립하려 했던 10.27법난기념관보다 사업부지와 연면적은 모두 확대됐다. 부지 면적 확대에 따라 총 사업비는 줄지 않고 유사한 규모를 유지한다.

향후 10.27법난기념관 건립사업은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기본 · 실시설계를 거치게 되며, 조계종은 오는 2024년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계종 사회부는 "천년고찰 봉은사에 기념관이 건립되면 불교전통문화 자원과 함께 지역문화 관광자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면서 "치유시설이 들어설 식사동은 동국대 일산병원에 인접해 피해자 스님들의 심신안정 및 치유에 적합한 부지다. 치유시설 규모도 증가돼 피해자 스님들의 직접적인 혜택도 증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례신도시에 건립하려 했으나 하남시의 건축인허가 접수 보류로 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었던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는 경기도 양평읍 공흥리 45-22 일원으로 부지가 확정됐다.

이는 중앙종회의원 심우 스님이 종단불사추진위원회에 현재 추진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확인됐다.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는 부지면적 1518평, 연면적 2157평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국비 133억 원, 자부담 57억 원 등 190억 원이 투입된다.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운영은 현재 세 가지 안이 제시된 상황이다. 1안은 전문보존복원기관이며, 2안은 아웃소싱(관리 · 감독기관), 3안은 대형불화보존복원이다. 현재는 3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위례신도시에 건립하려했던 불교문화유산센터도 대형불화(괘불)의 전문보존처리기관으로 관리 · 운영됨을 기본운영계획으로 하고 있다. 당시 작성된 〈불교문화유산센터 건립 및 운영계획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보존처리과정에 필요한 약품을 저장하는 창고부터 대형불화처리실 · 불화처리지원실 · 다목적보존처리실 · 지류/회화실까지 대형불화 보존과정에 필요한 주요 작업 공간이 배치될 예정이었다.

향후 종단불사추진위원회는 내년 6월까지 건축인허가를 완료하고, 11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종 준공은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단불사추진위원회는 "자립형 재정 운영을 위해 기금 조성 방안과 후원회를 통한 조성 방안을 검토했다"면서 "문화재보호기금법을 활용해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 사업을 확대하고 사찰 소장 문화재 보존 처리도 확대 시행토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회 관련 기사 2면〉



66년만에 본래 있던 곳을 돌아온 신흥사 영산회상도와 시왕도 앞에서 신흥사 스님들이 6 · 25전몰장병을 위한 천도재를 봉행하고 있다. 국난 속에서 해외를 떠돌던 성보 앞에서 선열을 위로하고 국난극복을 발원하는 장이 열려 의미를 더했다. 사진=노덕현 기자

설악의 보물, 66년 만에 歸鄕하다

속초 신흥사 11월 9일 귀국 환영법회

한국전쟁 혼란기 속에 사라진 후 66년만에 환지본처(還至本處)한 신흥사 영산회상도와 시왕도가 11월 9일 불자들 앞에 그 위용을 드러냈다. 영산회상도를 상단에 모신 청동대불앞 특설무대서는 100여 사부대중들이 환수의 험난한 과정을 이겨낸 신심과 원력으로 불교중흥에 앞장설 것을 발원했다.

속초 신흥사(주지 지혜)는 11월 9일 통일대불전에서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국운융창을 위한 신흥사 영산회상도 · 시왕도 귀국 환영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문중 스님들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됐으며, 신흥사 회주 우송 스님과 주지 지혜 스님 등 스님들과 이양수 국회의원, 김철수 속초시장 등 관계자 및 불자 100여 명이 동참했다.

6 · 25 전몰장병 천도재와 함께 진행된 이날 행사는 총 3부 행사로 1부와 3부에서는 6 · 25 전몰장병 천도재 의식이 나뉘어 펼쳐졌다. 천도재 불공과 관음시식, 소대 봉송 의식 사이에 2부 서환영법회가 진행됐다. 이는 한국전쟁 당시 지금의 신흥사가 있게 해준 호국선열을 기리고 설악산에 깃든 생명도 영산회상도 앞에서 함께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속초 신흥사=김주일 기자

진각종 제 31대 통리원장 도진 정사 선출

10일 종의회서… 현정원장 회성 · 교육원장 효명 정사

진각종 제31대 통리원장에 도진 정사(의밀심인당 주교, 사진)가 선출됐다.

진각종 종의회(의장 효원 정사)는 11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4층 종의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제425회 임시 종의회서 통리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도진 정사를 제31대 통리원장에 선출했다. 도진 정사의 통리원장 임기는 11월 10일부터 시작됐으며, 취임법회는 12월 초 봉행된다.

신임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진기52(1998)년 본원심인당 주교를 시작으로 관행 · 신덕심인당 주교에 이어 의밀심인당 주교를 맡고 있다. 전라교구 종무국장, 전라교구청장, 대전교구청장, 제13 · 14대 종의회 의원, 유지재단 감사, 현정원 현정위원, 진각복지재단 감사, 제15대 종의회 사무처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신임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당선 소감을 통해 "부족함이 많은 저를 선출해 주셔서 어깨가 무겁다. 법계의 인연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통리원장 직을 수행하겠다"면서 "승단의 화합과 소통을 최우선에 두고 종무행정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의 권한을 축소하고 지방 교구청의 역할을 확대해 지방 포교와 교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종무행정에 힘쓰겠다"면서 "4원장과 각 교구청장 그리고 부서장들과 협치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종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의회는 제37대 현정원장과 제14대 교육원장 선거를 실시해 현정원장에 회성 정사(전 통리원장)와 교육원장에 효명 정사(포항교구청장)를 각각 선출했다. 현정원장과 교육원장의 임기는 11월 19일부터 4년이다.

신임 현정원장 회성 정사는 진기45(1991)년 신락심인당 주교를 시작으로 불정 · 능인 · 시경심인당 주교를 지냈으며 현재 서울 행원심인당 주교를 맡고 있다.

신임 교육원장 효명 정사는 진기48(1994)년 항자심인당 주교를 시작으로 화친 · 교석 · 응화 · 명륜심인당 주교를 지냈으며 현재 포항 보정심인당 주교를 맡고 있다.

선출 직후 현정원장 회성 정사는 "31대 집행부의 원활한 종무행정에 현정원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원장 효명 정사도 "새로운 걸음을 걸어갈 시간이라 생각한다. 종단 교육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내년도 예산 893여 억원 확정

중앙종회 정기회서 예산안 승인
일반275억 · 특별 618억원 편성
10% 감액… '긴축 재정' 예상돼

의제법 · 총림법 등 개정안 가결
선관 위원 선출 등 인사안 처리
논란이된 정운스님 징계안 이월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12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19회 정기회를 속개하고 의사일정을 진행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내년도 예산이 893억 8400여 만원으로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는 11월 12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219회 정기회를 속개하고 의사일정을 진행했다. 정기회인만큼 중앙종회는 '불기 2565(2021)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총예산은 893억 84%만 50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일반회계는 지난해보다 20억 4713만 5000원(-6.92%) 감액한 275억 3627만 5000원으로 편성됐으며, 특별회계도 지난해보다 140억 8552만 5000원(-18.55%) 줄어든 618억 4869만 원으로 책정됐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예산이 전년 대비 10% 가량 감액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선 사찰들의 재정 수입이 줄면서 분담금을 감액 편성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종단 홍보를 비롯한 불교문화 · 미술 · 음악 진흥, 포교단체지원 등 지원사업들의 예산과 기관 운영 · 관리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축소됐다.

특별회계예산은 전년 대비 약 18%가량이 줄었지만, 조계종 현 집행부의 주요 사업인 '백만원력 결집불사' 관련 예산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이 편성됐다. 불교요양원 설계 예산으로는 3억 원이 책정됐으며, 계룡대 흥제사 건립 불사 예산으로는 20억 원이 배정됐다. 인도 부다가야 분황산 건립불사에는 36억 원이,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세우기 사업에는 1300만 원이 각각 편성됐다.

예산 설명을 진행한 조계종 기획실장 삼혜 스님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분담금과 관람료분담금을 모두 감액 편성했다"면서 "이를 추계해 중앙종무기관 예산을 전년 대비 10% 가량 감액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계별 가사 조수의 규정을 통일하고 문화재관람료 면제 기준을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 만든 것도 이번 정기회의 성과다.

법계법 시행령이 스님들의 가사 조수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계종 스님들의 가사 조수가 법계별로 통일 · 규정하게 됐다. 의제법 개정에 따라 현행 법계 5급 이상에 9조 가사를, 3급 이상에 15조, 1급 이상은 25조 가사를 수하게 된 것을, 견덕 · 계덕에 9조, 중덕 · 정덕에 13조, 대덕 · 혜덕에 15조, 종덕 · 현덕에 19조, 종사 · 명덕에 21조, 대종사 · 명사에 25조 가사를 수하도록 변경됐다.

하지만 개정 과정에서 일부 비구 의원들은 "명사 법계의 가사 조수가 대종사 법계의 가사 조수와 동일해서는 안 된다"며 비구와 비구니 법계가 동일한 가사 조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문화재 관람료 면제 범위를 조율하기 위한 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는 면제 대상 조항에서 삭제됐으며, 대신 '어린이, 장애인, 노인, 유공자 및 군인 등의 면제 기준은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에서 정한다' 조항을 신설해서 면제 기준을 논의할 수 있게 했다.

총림법 개정안은 최근 법계법 개정에 따라 대종사 법계 품수를 하는 스님들이 증가하면서 총림 임회위원이 급증해 임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상정됐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당연직 임회위원 중 '법계 대종사인 재적승'을 삭제토록 했으나, 논의를 거쳐 '재적 원로의원'으로 수정해 통과됐다.

1회에 한해 재적본사를 이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적본사 전적 특별법 제정안은 교구별 선거권 및 피선거권 혼란과 교구별 중앙종회의원 의석수 조정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차기 회의로 이월했다.

또한, 중앙종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 등의 종단 인사안을 처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는 혜민 · 선우 · 진산 · 현담 · 법해 스님이 선출됐으며, 종립학교관리위원으로 효신 · 탄탄 스님이 선출됐다.

총무원장이 제출한 법계위원과 교육원장이 제출한 고시위원 위촉 동의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법계위원에는 원경 · 경일 · 무관 · 동광 · 현고 · 정여 스님이, 고시위원에는 수진 · 일귀 · 대전 · 승원 · 무애 · 여연 · 상덕 · 수경 · 운산 스님이 위촉되는 것으로 결의됐다.

최근 불교신문 칼럼으로 논란이 된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정운 스님 징계안은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정운 스님이 회의에 불참했고 소명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돼 내년 3월 임시회로 이월됐다.

또한, 법원 스님(직할교구) 외 13인의 스님이 발의한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공감대 형성과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철회키로 했다.

조계종 원로의원 우경 스님 추천

정기회서 만장일치… 대종사 · 명사 특별전형 동의도



조계종 원로의원에 제주 관음사 회주 우경 스님<사진>이 추대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는 11월 12일 속개한 제219회 정기회에서 원로의원에 우경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천했다.

우경 스님은 고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재적본사는 관음사다. 1955년 신흥사서 고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5년 범어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백련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현재 제주 관음사 회주로 주석 중이다. 원로의원으로 추천된 우경 스님은 향후 원로회의에서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선출된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는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과 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가 통과됨에 따라 능엄(직할교구) · 청화(직할교구) · 종상(직할교구) · 함주(법주사) · 지명(법주사) · 의현(은해사) · 법달(불국사) · 관우(불국사) · 수성(해인사) · 성주(해인사) · 천제(해인사) · 중천(해인사) · 혜장(해인사) · 청현(송광사) · 현문(송광사) · 범종(송광사) · 현봉(송광사) · 우경(관음사) · 혜산(선운사) · 법현(선운사) · 대우(선운사) · 범여(선운사) · 재곤(선운사) 스님 등 총 23명의 스님이 대종사 법계를 품수받는다.

비구니 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가 가결되며 명수(직할교구) · 혜준(직할교구) · 명우(직할교구) · 묘순(직할교구) · 성일(용주사) · 육문(은해사) · 일초(해인사) 스님 등 총 7명의 스님이 명사 법계를 품수받게 됐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제32회 포교대상에 보광 스님

혜도 스님 등 공로상 4명… 11월 25일 시상식



포교 전법 현장에서 꾸준히 활약해 온 불자들을 치하하는 조계종 포교대상에 보광 스님<사진>이 선정됐다.

조계종 포교원은 11월 9일 포교대상 심사위원회를 통해 제32회 포교대상 대상(종정상) 수상자로 동국대 前 총장 보광 스님(성남 정토사 주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보광 스님은 남다른 포교 원력으로 한국 불교학 저변 확대에 크게 공헌했다. 가장 대표적인 업적은 선문헌 연구의 기틀을 다진 것이다.

보광 스님은 32년간 동국대 선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선수행자의 필독서로 꼽히는 조동종 개산조 도겐 스님의 〈정법안장〉 역주를 진행하고 있다. 학문 연구와 함께 전법포교에도 앞장서 2010년 성남시 청계산 자락에 '정토사'를 창건했다. 또 '만일염불 결사회'를 조직하여 하루 1000번 이상 염불, 108배 생활화 및 각종 법회와 철야 염불기도 진행하는 정토염불신행을 이끌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은 이날 제32회 포교대상 공로상(총무원장상) 수상자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을 비롯해 수암 스님(화계사 주지), 최대경(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부산지회장), 이연화(제10교구본사 은해사신도회 회장) 씨도 선정했다.

혜도 스님은 1987년부터 현재까지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으로 주석하며, 어린이회 학생회 청년회 부산대 불교대학생회 등을 적극 지원해 활성화시켰다. 한마음유치원을 운영하는 등 불교 미래를 위한 전법포교에도 앞장서고 있다.

원력상(포교원장상)에는 묘장 스님(학도암 주지), 성연 스님(서운암 감원), 보운 스님(군종교구 원광사 주지), 김행규(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 회장), 이옥희(동화사 신도), 최은주(봉은사신도회 사무총장), 김나희(좋은벗풍경소리 팀장), 봉선사 포교사회, 선본사 발심회가 선정됐다.

한편, '제32회 포교대상 시상식'은 11월 25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봉행된다. 노덕현 기자

本紙 '코로나&불교' 언론문화상 우수상

대상 BBS '서릿날동안거' 선정
'마음꽃TV' 뉴미디어 우수상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본지가 기획 보도했던 '코로나&불교' 연속 시리즈가 제28회 불교언론문화상 신문 부문 우수상에 선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은 11월 11일 "제28회 불교언론문화상 신문부문 우수상으로 신성민 · 노덕현 · 송지희 기자의 '코로나&불교' 연속 시리즈 보도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본지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 이후 불교계가 나아갈 방향을 분석하는 일련의 기획 기사와 코로나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소개하는 정보성 기사를 특집 기획 형태로 연속 보도했다.

5월 27일 부처님오신날 특집호에 게재된 '포스트코로나 & 불교'는 코로나 시대에서 불교의 상황을 진단했다.

9월 30일 본지 창간26주년 특집호에는 '코로나19 이후 불교계 변화'를 주제로 불교계 오피니언 리더 100인(출가자 50인 · 재가자 50인)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특집 기획으로 게재했다.

4월 한달 동안 제작 · 보도했던 '마음방역 · 셀프힐링'은 코로나 우울, 분노가 확산됨에 따라 불자와 국민들이 스스로 마음 · 심리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보성 기사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올해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에는 BBS의 '서릿날동안거'가 선정됐다. 방송부문 TV최우수상에는 KBS다큐멘터리 '매혹의 실크로드' 4부작이, 라디오최우수상에는 BBS의 '코로나19 극복발원 BBS 8시간 특별 생방송 아름다운 보시'가 수상했다.

신문부문 최우수상에는 불교신문의 법정 스님 열반 10주기 특별기획 '무소유의 향기를 찾아서'가 이름을 올렸으며, 뉴미디어 부문 최우수상에는 유튜브 '불로잡생'과 한마음선원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마음꽃TV'가 선정됐다.

한편, 제28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은 11월 3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다.

신성민 기자



이웃 위한 자비행으로 상월결사 1년 회향

만행결사 자비순례단, 11월 11일 1주년 기념식 개최

1년 간의 상월결사 정신 되새기고 베트남 · 탄자니아 · 병원구급차 지원 자비순례 결산보고… 9682명 동참





사진 왼쪽은 만행결사 자비순례에 동참한 순례단 스님들과 불자들이 완보증서와 순례기록을 담은 사진첩을 받는 모습. 사진 오른쪽은 상월결사 1주년을 맞아 결사대중이 각계에 지원금을 전달하는 모습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오직 부처님 법대로 살기 위해 은산철벽을 치고 들어간 위례 상월선원에서의 90일간 용맹정진, 그리고 이어진 만행결사 예비순례와 자비순례, 11월 11일 상월결사 1주년을 맞아 상월선원 결사대중들이 한자리에 다시 모였다. 자비순례에서 쌓인 반가움을 나눔도 잠시 결사대중은 우리 사회의 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그 원력을 회향했다.

상월선원 결사대중은 11월 11일 서울 봉은사 옆 더라빌웨딩홀에서 상월결사 1주년을 기념한 '불교중흥 국난극복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단 사부대중 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만행결사 자비순례 511km를 완보한 69명의 결사대중과 자원봉사자 등 외호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상월선원 천막결사를 되돌아보는 영상 감상, 신간 〈상월선원〉 소개, 천막결사 · 만행결사 예비순례 · 만행결사 자비순례 사진전 소개 등 식전행사와 완보증서 및 감사패 전달, 사회 이웃을 위한 회향마당, 결산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사회공헌' 결사정신 실천

특히 이날 행사는 자비순례 중 답도한 보시금을 사회 곳곳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회향의 마당으로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상월선원 천막결사 후 결사대중이 헌혈로 회향하고 공양금을 모아 코로나 극복을 위한 소외계층 마스크 전달에 나섰던 의미를 되짚기 위함이었다.

먼저 한국과 베트남 우호 증진을 위해 베트남 농촌학교 해우소 건립기금이 전달됐으며, 아름다운동행에 아프리카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지원금, 스노우보드 국가대표 정해림 선수에게 해외전지훈련 지원금, 동국대일산병원에 구급차 구입 지원금을 전달했다. 또 불교음악원과 불교언론사들에게도 발전기금이 전달됐다.

행사서는 자비순례 회향 기념으로 62명의 완보자들과 자원봉자자들에게 완보증서와 사진첩도 함께 수여됐다.

완보증서는 회주 자승 스님이 순례단원들에게 직접 수여했으며 이어 자비순례 당시 순례단에 따뜻한 차를 보시한 만오 박치호 불자와 명선다례원에 감사패를, 김범수 BTN제작본부 부국장에게 공로패도 전달됐다.

사부대중 '불교중흥 계기' 소감

행사선 순례의 소감도 다양하게 나왔다. 비구 스님을 대표해 무상 스님은 "포교가 되고 힘이 되는 순례라는 걸 느꼈다. 승려생활 중 가장 값진 수행이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순례 도중 지역민들과 불자들이 뜻을 함께해주는 걸 봤을 때 힘이 났다. 그 힘으로 무사히 순례를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비구니 스님을 대표해 유승 스님은 "순례서 행복했고 회향하는 순간 너무 아쉬웠다. 어렵고 힘든 순례의 수행길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불교중흥과 국난극복의 원력이 함께했기 때문이었다"며 "앞으로 매 순간마다 간절한 힘과 원력으로 제 직분에 맞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바새를 대표해 주윤식 중앙신도회장은 "복이 너무 많아 취임식 다음날 순례단에 합류할 수 있었다. 금호강 안개 속 장엄한 행렬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불교중흥이 무엇인지 확인했고, 27대 중앙신도회는 이 불교중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우바이를 대표해 최고령자 이채순 씨는 "동화사에서 텐트에서 잤는데 춥고 떨렸다. 당시 아홉 스님 어떻게 견디셨을까 하면서 각오가 더 생겼다. 잘 걷지도 못했는데 도반들이 보살펴주어 회향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前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은 "결사가 불교사상을 실천하는데 활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힘들었지만 부처님 발자취를 좇는다고 생각했다. 완보까지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사부대중이 함께해 가능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불교가 새롭게 실천하는 기회가 되고 불자임을 자부하는 신심의 발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로노인복, 온오프 경연대회로 新노인문화 주도

11월 10일 '시니어 슈퍼스타 트로트 주제 10개 팀 본선전 유튜브 등으로 2000명 참여

'할담비' 지병수 어르신의 뒤를 이을 '종로의 트롯신'을 선발하는 어르신 경연대회가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주도로 열렸다. 11월 10일 복지관서 진행된 '2020 시니어 슈퍼스타 종로'는 '종로의 트롯신을 찾아라'를 주제로 한 본선전으로 치러졌다.



시니어슈퍼스타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날 경연대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현장 인원을 50명으로 최소화하는 대신,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적극 활용한 온라인 응원단 운영 등 '온오프믹스' 방식을 채택해 비대면 경연대회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다.

경연대회는 예선 에피소드 메이킹 필름 상영과 힐링뮤지컬 아모르파티의 식전공연으로 시작됐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개회사에 이어 이낙연 국회의원과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의 영상 인사, 여봉무 종로구의장의 축사, 관장 정관 스님의 인사말을 끝으로 본격적인 경연이 시작됐다. 심사위원은 배우 현석 · 정혜선, 정관 스님, 이세용 조계사 종무실장, 박노숙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이은주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이 맡았다.

이번 경연은 예선 단계부터 온오프라인 방식을 동시 활용함으로써,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어르신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예선전은 개인 영상을 찍어 SNS로 제출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했으며, 영상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개별 촬영과 영상 업로드를 개별적으로 도왔다. 예선 6: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의 본격적인 경연이 진행되는 동안, 무대 스크린에는 집과 복지관 등에서 유튜브를 보며 각 팀을 응원하는 온라인 응원단의 열정적인 모습이 이어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

경연결과는 10팀의 공동 1등. 심사위원들은 "힘든 국난의 시기, 자랑스러운 선배시민의 모습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본선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쳤다는 점에서 모두가 1등의 자격이 있다"며 만장일치로 공동수상을 결정했다.

정관 스님은 "이번 경연대회는 '할담비'를 배출했던 역사적인 무대이기도 하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면 좋았겠지만 처음 시도하는 온오프믹스 방식으로 예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어 더 큰 감동이었다"며 "선도적으로 신노인의 면모를 보여주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인생은 60세부터라는 말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며 감사를 전했다.

한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종로인권모니터링단은 의료진과 소방관에게 감사와 응원을 담은 편지와 간식을 전했다. 이어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에서 주최하는 '코로나를 이기는 노인자원봉사' 영상공모전에 활동영상을 제출하여 금상을 수상했다. **송지희 기자**

동국대 경주캠퍼스, 선센터 준공식

마음건강 학습으로 선과 명상 치유 문화 대중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가 지난 12일 오후 2시 선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은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성우 스님,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주낙영 경주시장,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최소 규모로 진행됐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선센터는 연면적 2천 500㎡, 761평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3개의 선방을 갖춘 선수행동을 비롯하여 공양동과 부속건물로 교내 사찰인 정각원과 온방골 연못을 마주한 곳에 조성됐다.

선센터는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보유한 교육 연구 역량과 지역 불교 역사 문화 유산을 기반으로, 마음건강 교육과 참선, 명상 문화 프로그램 등 운영을 준비하여 내년 봄 개원할 예정이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성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경주캠퍼스 선센터는 대한불교조계종 종립대학으로서 우리 동국대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또 하나의 공간이 될 것"이라며 "선센터가 경주캠퍼스 구성원은 물론이고, 경주를 비롯하여 영남 지역의 불교도와 지역민이 함께 향유하고, 안심(安心)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은 "선센터는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제공할 것이다. 지역에서는 명상, 체험을 통해 힐링의 명소가 되어 명상 치유 문화의 대중화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중생구제’ 원력으로 민주화 · 인권신장 앞장

창립 30주년 맞은 불교인권위원회

1990년 정각원서 비밀리에 창립
사형제 폐지 운동도 주도하기도
‘不二’ 사상 화두로 전환점 예고
26회 불교인권상은 정상덕 교무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불교인권위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사형제 폐지 운동부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지원까지, 우리사회 곳곳의 소외되고 차별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중생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고군분투해 온 불교인권위원회의 30년 역사는 곧 ‘불교인권’의 발전과 맥을 함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는 1990년 11월 20일 서울 동국대 정각원에서 경찰의 감시망을 피해 비밀리에 창립했다. ‘불교인권’이라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당시, 불교인권위원회의 창립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한국사회 인권 의식을 고취하고 고통 받는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었다.

불교인권위원회 창립주체이자 지난 30년간 구심점으로 활동해 온 진관 스님은 “정각원 열쇠를 찾아 문을 열었고 소수의 인원만 모인 가운데 현수막 한 장 펼친 채 10분 만에 창립 선언을 하며 첫 발을 내딛었다”며 “거창하지도, 거창할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불교인권위원회가 창립한 1990년은 불교계가 군부독재의 군홧발에 처참히 짓밟혔던 10.27법난이 발생한 지 꼭 10년째 되던 시기였다. 10.27법난 이후 이로 인한 상처를 안은 채 민주화를 향한 사회적 열망을 지켜보던 불교계 인사들은 ‘불교인권위원회’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진관 스님을 중심으로 뜻을 모아나갔다. 특히 10.27법난은 불교인권위원회가 이후 사회약자들의 권익보호와 인권보장에 앞장서면서도 반민주적, 비인권적 법률개정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 스님

이 과정에서 진관 스님은 중생구제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스님들의 활동이 곧 불교인권운동과 다르지 않음을 확신했다. 때문에 불교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궁무진했고, 광폭행보로 이어졌다.

불교를 대표해 민주화에 힘을 실었고, 사형제 및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부터 노동권 신장 운동, 평화통일 운동,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집 지어주기 운동까지, 소외된 약자의 인권보호 위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진관 스님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등 고충을 겪기도 했다. 수감 생활 중 사형수와 무연고 수감자들을 만난 경험은, 이후 불교인권위원회의 무연고 사형수 영치금 보내주기 운동으로 이어졌다.

창립 4년이 지난 1994년엔 불교인권상을 제정했다. 종교와 분야를 가리지 않고 그해 활발한 활동으로 인권신장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했고, 소정의 상금과 격려를 전하며 지지와 연대에 마음을 보탰다.

꾸준한 활동이 이어졌지만 정작 위원회 운영은 쉽지 않았다. 활동비는 항상 부족했고 불교인권상 시상식 한번 치르는 것조차 부담이 컸다. 열악한 상황에도 불교인권위원회가 30년간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조계종, 그리고 스님들이었다. 진관 스님은 “힘든 순간마다 조계종이 의지처가 돼 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격려와 지원을 해 준 스님들도 적지 않았다”며 “30년이 지난 지금에야 종단과 스님들에게 처음으로 진심어린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30돌을 맞은 불교인권위원회는 이제 새로운 화두를 품고 미래 30년을 향해 나아간다. 사무총장 범상 스님은 “앞으로의 활동은 불이(不二) 사상을 바탕으로 인류 뿐 아니라 유정무정까지도 함께 공존해야 할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운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불교인권위원회는 기존의 활동에 더해, 비핵화와 환경운동, 인류공존의 不二 사상 확산운동 등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핵전쟁의 위협은 물론 경제전쟁을 비롯한 갈등, 자연파괴와 공해 문제 등을 해결하고, 어리석음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을 멈추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진관 스님은 “지난 30년간 사회적 이슈에 함께 동참했던 동지와 활동가, 도움을 준 분들께 감사하는 동시에 부족했던 활동에 미안함을 전한다”며 “미래 30년을 준비하기 위한 불교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0주년 기념행사는 2021년으로 연기됐으며 올해 제26회 불교인권상 수상자에는 정상덕 원불교 교무가 선정됐다.

불교학계 추계 학술대회 ‘봇물’

한국불교학회 20일 학술 대회

학술 발표의 계절 가을을 맞아 불교학계가 추계 학술대회를 대거 개최한다. 먼저 한국불교학회(회장 고영섭)가 11월 20일 오후 1시 ‘한암 중원, 조계종 근본을 확립하다’를 주제로 추계특별학술대회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불교의 장자 종단인 조계종의 근본을 확립한 한암 중원(1876~1951) 선사의 살림살이와 사고방식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불교학회는 △한암의 조계종 종조관 △조계종 창종과 한암의 역할 △조계종의 명칭 대두와 대한불교조계종의 계승 △지눌과 경허의 영향과 한암선의 특징 △한암을 통해 본 간화와 반조의 병진 구조 △삼본사수련소의 시행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학술대회에 앞서 ‘제1회 한암학술상 시상식’도 열린다.

고영섭 한국불교학회장은 “종래 한국불교의 성격 구명 담론에서는 ‘통합불교’ 또는 ‘종파불교’로 규정해 왔지만 실제 어떤 측면에서 그러한 규정이 가능한 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선학들의 논의를 검토하면서 한국불교가 지닌 강점과 장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승비문, 묘비명, 유서, 불서, 실록, 관고 등의 관련 사료와 저술들을 총동원하고 총망라하여 이 논제에 대한 집중적 탐구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학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행선연구원(원장 권탄준)도 ‘불교사상과 대행사상’을 주제로 11월 21일 오전 10시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제4회 대행선연구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불교학연구회(회장 임승택)는 11월 14일 동국대 사범대에서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초기불교 다시보기 : 학문적 반성과 과제’를 주제로 연구결과를 선보였다. 불교미술사학회(회장 송천)도 ‘불교미술의 새로운 시각’을 주제로 11월 14일부터 이틀간 줌(zoom)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편, 2020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 결과에서 불교학계의 신규 학술지가 눈길을 끈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불교철학〉과 한국불교사학회 한국불교사연구소 〈한국불교사연구〉가 등재후보학술지로 신규 선정됐다. 노덕현 기자

조성금교수 本紙 연재물 ‘붓다북학술상’

제17회 불교출판문화상서
‘위구르 왕국 불교회화’로
중앙꾠불교미술연구 망라



본지서 ‘한국불화 원류를 찾아서’를 연재 중인 조성금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객원교수의 저서 〈실크로드 대제국 천산 위구르 왕국의 불교회화(이하 위구르 왕국의 불교회화)〉가 제17회 불교출판문화상 ‘붓다북학술상’에 선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과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지홍)는 11월 11일 올해의 불서 10종 · 제17회 불교출판문화상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아시아 불교미술 전문가인 조성금 객원교수의 〈위구르 왕국의 불교회화〉는 뛰어난 학술저서를 시상하는 ‘붓다북학술상’에 선정됐다.

〈위구르 왕국의 불교회화〉는 조성금 객원교수의 동국대 박사 논문 ‘천산 위구르 왕국의 불교회화 연구’를 확장 · 보완한 것으로, 위구르 왕국의 개요부터 미륵 · 관음 등 주요 도상의 전문적 분석까지 위구르 왕국 불화 전반을 망라하고 있다. 저자는 중앙아시아 미술의 중요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불교문화 동점(東漸) 과정의 횡적 연계성을 밝혀내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불화 도상들을 분류하고 조성 근거가 되는 경전들을 찾아 분석한 두 번째 챕터다. 저자는 투르판 출토 ‘불설예수시왕칠경변상도’, 북정 서대사 ‘미륵상생경변상도’, ‘천수천안관세음보살도’, 베제클릭 20굴 ‘비나야약사변상도’, 베제클릭 18굴 ‘소제재난경변상도’, 교하고성 출토 ‘귀자모도’의 도상을 분석하며 해당 도상들이 어떻게 동아시아 전반으로 동점하는지를 살피고 있다.

이와 함께 제17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에는 〈사찰에는 도깨비도 살고 삼신할미도 산다〉(노승대 著)가 선정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고승대덕들 귀한 선서화 한 자리에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후원
‘고승 대덕 선 서화전’ 열려
11월 18~24일 불일미술관


경봉 스님 作, 무진장.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및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 후원을 위하여 창립된 선주회(회장 정상철, 김한란)는 11월 18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종로구 불일미술관에서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을 후원하기 위한 ‘고승대덕 禪 서화전’을 개최한다.

이번 ‘고승대덕 선 서화전’에는 그동안 쉽게 볼 수 없었던 국내 선지식들의 희귀 선서화 10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경봉, 청담, 구산, 환경, 추담, 서옹, 석주, 월하 스님 등 대덕 선승들이 생전에 남긴 서화 다수와 송담 스님의 희귀 달마도, 불화부문 주요무형문화재 석정 스님의 일원상 및 범주 스님의 옻칠산수만행도, 보성 스님의 선시, 법흥, 고산, 성파, 수안 스님 등 국내 선승들의 희귀 선서화들을 다수 선보일 예정이다.

그 외에도 허행, 박행보, 조방원 등 유명 화백들의 산수화와 이돈흥 화백의 반야심경, 김종국 화백의 신선도 등 유명 작가들의 작품도 선보인다. 아울러 월산스님의 선도자기와 성파 스님의 달항아리 등의 도자기도 전시된다.

이번 전시회는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및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 후원을 위해 마련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각 선원 수좌를 대표하는 스님들이 선뜻 많은 작품을 내놓았으며,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의정 스님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송담 스님의 희귀본 달마도 2점을 희사하기도 했다. 선의 경지에서 구현된 물아일치의 다양한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문경세계명상마을은 한국 고유의 간화선을 중심으로 한 화두참선 정신을 세계에 알릴 목적으로 종립선원 봉암사가 위치한 문경 희양산 자락에 건립 추진 중인 선센터이다. 특히 문경세계명상마을은 한국 선(禪) 전래 1200주년인 202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립 이후 선수행과 관련된 교육 및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한국 간화선의 세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의정 스님은 21세기 문명의 대안으로서 선(禪)이 그 방향을 제시하고 인류사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시점에서의 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선서화전을 통해 많은 불자들에게 홍보하고 또한 교류를 통해 선수행의 지평을 넓히고 한국불교의 재도약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승가대 총장 원종 스님은 “수좌 스님들의 수행정진을 지원하고 문경세계명상마을의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백만원력 결집불사

원력과 발심으로 한국불교 중흥을 이룹시다.

백만원력결집불사는 원력보살 100만명의 원력으로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운동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고 마침내 큰 바다가 되듯이 우리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서
여러분의 각 가정과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불법은 널리 전해질 것입니다.

지금, 불자님의 참여가 한국불교의 희망입니다.

모연동참안내

▶ 매일 100원을 발우저금통에 보시
▶ ARS 060-700-0012 (1통화, 3천원)
▶ 후원계좌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 (백만원력결집)
▶ 문의 02)6273-0108,0109

· 부처님 성도지 인도부다가야에 한국사찰 분황사를 건립합니다.
·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를 건립합니다.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을 건립합니다.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를 건립합니다.
· 불교 병원·요양원을 건립합니다.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기금을 마련합니다.
· 경주 남산 열암곡에 넘어져 계신 마애부처님을 일으켜 세웁니다.
· 10.27 법난기념관을 건립합니다.
· 위례신도시 종교시설을 건립 합니다.
· 어려운 이웃을 위한 가칭)나눔기금을 조성합니다.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조감도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조감도


세종시 광제사 대웅전 조감도

화마 입은 절망 현장에 '희망나무' 심어요

울산불교환경연대 '탄소흡수림' 조성

산불 현장 울주 청량면 일대
호두나무 400그루 숲일구기
탄소 흡수림 조성 위한 활동
기후 위기 막는 생태계 복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화마(火魔)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나무들은 타다 남은 검은 줄기를 안고서 몸살이었다. 건조한 땅은 밟을 때마다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황폐한 분위기를 더하듯 먼지가 앞을 가렸다. 올해 3월 산불이 덮친 울주군 청량면, 스님들과 주부, 학생, 어린이들이 곡괭이와 삽을 들었다. 어린 호두나무를 심으며 자연과 생명을 지킬 숲을 꿈꿨다. 생명을 지키는 '방생의 숲'이 탄생했다.

울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천도)가 11월 7일 '탄소흡수림 조성을 위한 나무방생 법회'를 울주군 청량면 삼정로에 위치한 산불 현장에서 개최했다.

나무생태방생은 화재로 인해 사라진 숲에 나무를 심어 생태계를 복원하고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탄소흡수림' 조성 활동이다. 탄소흡수림 조성을 위해 나선 사람은 스님들이었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 불교환경연대 前상임대표 법일 스님, 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 스님, 고문 덕진 스님(정토사), 전 상임대표 능행 스님(정토마을), 공동대표 혜진 스님(벽선암), 효암 스님(여여선원), 운영위원 혜경 스님(법왕사), 화정 스님(성담사), 지월 스님(도솔암) 외 경남, 대구 등에서 스님들이 참석했다. 이른 새벽에 출발해 광주에서 왔다는 청빈암 정현 스님은 일찍이 묘목방생을 위한 동전모금도 진행했다.

청빈암 신도 30여명은 물고기 방생보단 나무숲 조성에 의미를 뒀고 동전모금에 앞장섰다. 아울러 김점복 양산국유림관리소장,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울산우신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 울산불교환경연대 회원 등 250여명이 동참했다.



울산불교환경연대가 11월 7일 '탄소흡수림 조성을 위한 나무방생 법회'를 울주군 청량면 삼정로에 위치한 산불 현장에서 개최했다.

나무심기에 앞서 참석자들은 삼귀의 및 반야심경으로 마음을 모았고 스님들과 내빈들은 인사말 및 격려사로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나무심기를 위해 가수 라마의 응원곡도 마련됐다. 아울러 이어진 나무심기 설명에 아이들은 진지하게 집중했고 삼삼오오 조를 이뤄 출발했다.

산불현장에 도착한 스님들은 삽으로 땅을 파며 "내가 왕년에 울력을 좀 했다"며 웃었고 엄마의 손을 잡고서 곡괭이에 손을 얹은 채 동참한 어린이들도 있었다. 구슬땀은 흘러 땅을 적셨고 가을 하늘은 유난히 파랗고 화창했다.

참가자들은 "말 그대로 민둥산이었다. 나무들이 울고 있는 것 같았는데, 나무를 심고 나서 보니 푸른 미래가 보인다. 뿌듯한 마음이 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날 심긴 호두나무는 총 400그루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울산불교환경연대는 지난 9월 29일 양산국유림관리소와 '탄소흡수림 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맺었다. 나무심기를 위해 울산불교환경연대는 동전모으기를 진행, 묘목을 마련했고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도 나무를 후원하며 함께 동참했다. 울산불교환경연대는 자연보호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활동을 이어 갈 것이란 다짐이다.

상임대표 천도 스님은 "오늘 상처 입은 산에 나무를 심듯이 이웃과 사회에도 희망을 심어주어 따뜻한 세상이 되길 바란다"며 "나무는 대기 중의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 저장해 주는 자연 탄소해결사이기에 탄소흡수림을 조성했다. 어린이, 청소년 등 우리 미래 세대들과 함께 해 더욱 뜻깊은 현장이었다"고 말했다.

장기기증 가치 알리는 거리 홍보 눈길

부산생명나눔실천, 11월 7일
12회 장기기증 캠페인 진행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가 생명의 가치와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개최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는 11월 7일 초읍 학생교육문화회관 앞 야외광장에서 '제12회 생명나눔 장기기증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 개막식은 본부장 심산 스님의 인사말을 비롯해 휠체어 전달식으로 이어졌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매년 장기기증 캠페인을 진행하며 휠체어가 필요한 환자를 선정, 전달해 왔다. 올해는 부산보훈병원, 성모병원, 메리놀병원 등 부산지역 병원에서 9명의 환자가 선정됐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11월 7일 초읍 학생교육문화회관 앞 야외광장에서 '제12회 생명나눔 장기기증 캠페인'을 진행했다.

행사장에는 오전부터 장기기증 캠페인 부스와 손소독제 만들기, 타투, 잔디머리 인형 만들기 등 각종 체험부스가 마련돼 시민들과 함께 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매년 10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장기기증 캠페인 및 걷기 행사를 진행했으나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행사를 축소하고 의미를 전달하는데 집중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장 심산 스님은 "생명의 가치를 알리고 불교의 참된 보살행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는 축소되었어도 마음의 크기와 나눔의 실천은 더욱 커 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청소년·중견작가 콜라보 나눔전시회

'예술과 함께하는 참좋은 인연전' 개최

예비 청소년 미술작가들의 꿈을 키우는 전시회가 열렸다. 광주 관음사(주지 소운)에서 운영하는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은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1층 로비에서 '예술과 함께하는 참좋은 인연展'을 개최하고 청소년작가와 중견작가의 문화체험 및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사진>

청소년 문화예술 꿈키움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김영태, 김용태, 김정연, 김현우, 오기배, 윤순홍, 이동진, 이인호, 임현채, 최윤아, 한민정, 탁정은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견 작가 12명을 비롯해 17명의 청소년 작가들이 참여한다.

전시회는 어려운 환경에서 예술분야에 꿈을 키워가는 청소년 작가에게 멘토 역할을 하는 중견작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콜라보 작품전으로 총 50점이 전시된다.



11일 오픈식에는 관장 소운 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동현 스님을 비롯해 임택 동구청장, 서대석 서구청장, 참여작가 등이 참여했다. 행사서는 작가소개, 축하공연, 컷팅식, 작품감상 등이 진행됐다.

소운 스님은 "코로나19 시대는 근본적으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주었다. 서로 간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희망을 돋아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예술이란 자기 근본을 탐구해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것이다. 불교에서 수행자의 수행과정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청소년 작가들이 꿈을 잃지 않고 당당한 예술인으로 성장해 주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수련관 측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만들어진 수익금으로 미술 중단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유스캔TV, 진료토크콘서트 등 비대면 프로그램과 체육활동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해인사, '코끼리행복문화센터' 문 열다

주지 현응 스님, "소통과 자비의 정신으로 운영할 것"

합천 해인사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행복공간 '코끼리 행복문화센터'를 개관했다.<사진> 해인사는 열린 소통의 공간으로 주민들과 종교를 넘어선 화합의 장소로 이끌 것이라 밝혔다.

해인사(주지 현응)은 11월 11일 코끼리 행복문화센타 1층에서 '우리동네 행복아지트 코끼리 문화센터' (이하 코끼리문화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코끼리문화센터는 지역 사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합천 지역 아동과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문을 열었다. 아울러 해인사와의 소통을 이루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은 마을학교 사업과 지역 아동돌봄 등 아동 복지기여 활동이다. 아울러 보호대상 아동과 학대 아동, 학대 받는 여성을 보호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청소년을 위한 각종 문화강좌를 제공하고 다문화 주민 지원 사업도 펼칠 예정이다.

시설은 합천군 가야면 가야시장로98 해인사 가야포교당이며 연면적 952.25㎡ 지상 2층 규모로 휴식 공간인 카페와 강의실, 방송실 및 사무실 등이 있다.

개관식에는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진인성 해인사 신도회장, 문준희 합천군수 ,변석우 합천 경찰서장, 김경미 합천교육 지원청 교육장, 이중기 합천소방서장 등 사부대중 1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주지 스님의 인사말과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코끼리행복문화센터 소개 및 현판식 등이 진행됐다.

주지 현응 스님은 "센터의 운영 방침은 소통과 자비의 정신이다"며 "성숙한 소통의 장이 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고 지역주민과 어린이, 청소년 모두를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이끌자"고 당부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코끼리문화센터가 모성애와 책임감 있는 코끼리 같이 지역민들에게 따뜻함을 주고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역민을 위한 행복공간이 생겨 기쁘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양산 기청사, 법철 대종사 3주기 추모법회

경남 양산 법화도량 기청사 사부대중이 3년 동안 삼경당 법철 스님의 원적을 추모하며 정진했다. 주지 묘혜공 스님과 불자들은 법화행자였던 법철 스님의 정진 당부를 이어 법화경 독경소리로 법당을 채웠다.

경남 양산 법화도량 기청사(주지 혜공)는 11월 8일 기청사 법당에서 '삼경당 법철 대종사 원적3주기(대상)'를 회향했다.<사진>

회향 법회에는 주지 혜공 스님, 청룡암 일선 스님, 자광사 종광 스님, 법송사 도명 스님, 연화사 경덕 스님 외 사부대중 30여명이 동참했다.

주지 혜공 스님은 "회향을 맞아 수행자 본연의 모습과 자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며 "은사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 더욱 용맹 정진하는 수행자가 되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도탑 건립 불사를 추진하고 스님의 일대기 및 가르침을 책으로 정리해 큰스님 전에 올리겠다"고 서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응공조계종, 창종 9주년 법회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종정 법운)은 11월 11일 총본산 경북 칠곡 동명사에서 창종 9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회에는 종정 법운 스님과 원로회의 의장 법등 스님, 원로의원 홍원총무 지암 스님, 비구니회장 계현 스님, 법운 문도회 스님 등이 참석했다.

종정 법운 스님은 "창종과 함께해 온 종도 스님과 사부대중들은 삼독을 버리고 자기를 바로 보고 육바라밀을 행하여 마음을 비워 물소리 바람소리 처럼 살아가자"고 했다.

이날 법회는 5타 타종, 육법공양, 삼신이운, 운



심공양게, 중단권공 등 식전행사에 이어 삼귀의례. 반야심경, 발원문, 내빈소개, 공로패 증정, 봉행사,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익산 관음사, 공양미 나눔 콘서트 개최

익산 관음사(주지 덕림)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공양미를 전달하기 위한 제3회 공양미 나눔 콘서트를 개최했다.<사진> 11월 7일 관음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열린 공양미 나눔 콘서트는 관음사 주지 덕림 스님, 하재길 대한불교청년회장, 정헌율 익산시장, 김성규 대불청 전북지구 회장, 이강자 관음사 청년회장 등 불자 시민들이 참여했다.

공연에 앞서 덕림 스님은 "여러 신도님들이 모아주신 공양미가 익산시청에 전달돼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시민들이 훈훈한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로 3번째 열리는 공양미 콘서트는 관음사 청년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와 나눔의 보살행을 실천하고 익산 관음사의 목조보살입상을 모실 관음전 건립 추진을 위해 열리고 있다. 이날 모아진 공양미는 3,120kg으로 11월 12일 익산시청에 전달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직지사 응진전·약사전 부처님 개금불사 회향

조계종 제8교구본사 직지사(주지 법보)가 응진전과 약사전 불상 개금불사를 회향했다.

직지사는 11월 6일 응진전, 약사전 앞에서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응진전 삼존불 및 약사전 약사여래불 개금불사 회향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서 주지 법보 스님은 "응진전 석가여래 부처님의 복장물을 개봉하며 조성기가 발견됐다. 내용을 확인하니 조선 현종 9년(1668) 천불전 천불 조성 당시 협시불로 조성된 석가여래 부처님이고, 좌우에 모셔진 16나한님들도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납승의 재임기간 중 여법하게 개금불사를 봉행함은 물론이고, 개금불사를 계기로 석가여래불과 16나한상이 언제 조성됐는지 밝혀지게 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현불 논단

불교적인 군주란…

황순일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최고의 호법군주 아쇼카
불교외호 '담마라자' 남겨
공평 · 공정 가치로 전법

트럼프 대통령의 혐오 발언
차별과 사회 갈등 단초 제공
모범으로 국민 이끌 책임있어
2년 뒤 불교군주가 탄생하길

우리는 인도 마우리야 왕조의 3번 째 왕이었던 아쇼카(Ashoka)를 최고의 재가불자라고 이야기한다. 아쇼카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인도 동부 갠지스강 중하류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불교가 인도 전역으로, 스리랑카로 퍼져나갈 수 있었다. 또한, 그는 담마라자(dhammarāja)란 개념을 통해 불교를 진흥하고 보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불교적인 군주관을 정착시켰다. 아쇼카 이후 수많은 스리랑카와 동남아시아의 군주들이 스스로를 담마라자로 자리매김하고 불교 교단에 보시하는 등 불교를 진흥하고 보호하는 일에 앞장섰다.

사실 아쇼카는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이었다. 인도 전역에 남아있는 아쇼카 비문에 의하면 그는 불교의 불살생과 자이나교의 비폭력 그리고 동인도의 관습을 결합하여 그 자신의 도덕률인 다르마(dharma)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 개인적인 윤리관인 다르마를 국가와 사회를 통치하는 수단으로 발전시켰다. 따라서 아쇼카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여 국민이 자신을 따르도록 유도했다. 아쇼카 비문은 자신의 도덕률을 인도 국민에게 알리는 수단이었고 아쇼카의 진솔한 마음이 글에 담겨 있다.

아쇼카는 먼저 모든 국민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다스리겠다고 선언한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나의 자녀와 같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다루듯이, 모든 국민을 사랑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20세기가 되어서 가능했던 인권선언이 기원전 250년 경에 나왔다. 아쇼카는 이와 함께 노인을 공경하고, 모든 종교에 관용적이며, 생태적 입장에서 동물과 식물을 보호하고, 가난하고 힘든 국민을 도우라고 국민에게 가르쳤다.

그리고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비폭력 선언을 했고 불살생으로 시작되는 불교의 5계를 지킬 것을 권장했다. 아쇼카의 노력은 국내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로 확대되었다. 그는 이웃 나라로 신하들과 불교의 스님들을 파견하여 자신의 다르마를 알리려고 노력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불교가 성공적으로 스리랑카에 정착되었다.

얼마 전 있었던 미국 선거에서 현직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선거에 져서 물러나게 되었다. 불교적 척도로 보았을 때 그는 어떤 대통령이었을까?

그는 '미국 제일주의'를 표방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하여 세계질서를 흔들었고, 인종차별 발언을 일삼아서 흑인과 히스패닉 국민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이슬람에 대한 차별을 부추겨서 이슬람교도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하여 지구 온난화를 방조했으며, 총기규제를 완화하고 총기 소유를 권장하여 총기에 의한 폭력을 불러일으켰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를 다른 대책 없이 폐지해서 국민을 어렵게 했으며, 부유한 사람의 세금을 대폭 감면하고 자신도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아서 국가적 도덕적 해이를 일으켰다. 어떻게 보면 그는 아쇼카와 같이 스스로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이를 통해 국민을 올바른 길로 이끌겠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다. 지난 4년간 그가 했던 행동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각각에 있어서 불교적인 군주와 정반대되는 길을 선택해온 것 같다.

그의 퇴진은 이때까지 그가 행한 이러한 행위들의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불현듯 2년 후 있을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불교적 군주관을 척도로 어림짐작해 본다.

社 說

'사회공헌' 상월결사 또 다른 행보

공심(公心)이 담긴 하나의 원력(願力)이었다. 상월선원 결사는 천막결사를 거쳐 만행결사까지 장장 1년 동안 이뤄졌다. 그리고 결사마다 회향은 나눔의 행보였다.

돌아보면 위례 상월선원 무문관 정진을 원만히 회향한 회주 자승 스님 등 정진 대중들의 첫 행보는 헌혈이었다. 스님들은 결사를 마친 지 하루만인 2월 8일 서울 봉은사로 온 헌혈차에서 헌혈에 동참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우려로 최근 헌혈하는 사람들이 사라져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접한 스님들이 세상에 회향하겠다는 뜻을 세운 것이었다. 2월 25일에는 코로나로 취소된 회향식 비용으로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구입해 복지관에 전달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11월 11일. 상월결사 대중들은 자비순례 회향 또한 사회 소외계층과 함께 진행했다. 병원 구급차 구입, 베트남 농촌학교 해우소 건립, 탄자니아 농업학교 운영 등 자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결사는 매우 중한 단어다. 목숨을 건 정진을 통한 깨달음의 길이다. 그 끝은 무엇일까. 바로 대중과 함께 그 깨달음을 나누는 것이다. 상월결사는 수차례 순례를 통해 한국불교에 새로운 전형을 세웠다. 그 마지막 회향도 소외계층과 함께한다는 전범을 만들었다.

이제 상월결사는 삼보사찰 순례와 인도 만행결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 어려운 이웃과 사회 곳곳에 자비의 손길을 뻗는 일도 이어질 것이다. 상월결사는 수행자 본분에 맞는 용맹정진을 통해 한국불교의 청정성을 회복하고 수행가풍을 진작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천막결사 회향에서 보여준 큰 울림은 자비순례 회향에서 보여준 사회 공헌 등으로 우리 곁에 또 다른 울림을 전하고 있다.

불교인권위원회 30주년에 부쳐

불교인권위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저변 확대를 꾀한다고 한다. 부처님 가르침인 '不二' 사상을 새로운 화두로 삼아, 인류를 넘어 지구공동체를 위한 비핵화와 환경운동으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불교인권위원회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면서, 그 행보가 침체된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길 바라는 마음이 크다.

불교인권위원회는 1990년 창립했다.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의식이 저조한 시기,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 발걸음을 맞추며 '불교 인권'의 새로운 정의를 깃발삼아 두각을 드러냈다. 사형제 폐지 운동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집지어주기 운동, 노동과 평화통일 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 뛰어들어 소외된 이들의 인권신장에 기여했다.

그렇게 3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불교인권위원회도 우여곡절을 겪었다. 재정부족으로 매순간 운영의 어려움에 직면했고, 활동도 서서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조계종 인권위원회 출범 추진 계획은 성사되지 못했고, 한국종단협의회 산하 기구로 재정비되면서 조직 여건은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히 운영상황은 열악하다. 불교인권위원회를 바라보는 불교계 시선 속에 다소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이유다.

그럼에도 기대는 여전하다. 과거 불교단체의 한축을 담당하며 불교계 인권 운동의 기치를 세웠던 만큼,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리라는 믿음 덕분이다. '不二' 사상이 진정한 인권 운동의 기폭제가 되어 불교인권위원회의 위상과 발전에 든든한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 동시에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을 체계화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하는 등 조직 안정화에 대한 노력도 이어지길 바란다.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스님 업이 뭡니까?

얼마 전 어느 기자분이 "병원 일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물어왔다. 순간 '아, 잊고 살고 있었구나.' 하는 한 생각이 들며 소록도 작은 섬이 떠올라왔다.

강원과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초년생처럼 세상 밖으로 막 첫걸음을 내딛던 시절이었다. 선방의 방부를 들이지 못하고 잠시 고민하다 만행을 계획하였다. 일 년만 봉사만행을 해보자 하고 찾은 곳이 '소록도'였다.

'걷다가 손가락 한 마디 땅 위에 떨어지다.'

한하운 시인의 싯구절을 읊조리며 봉사를 낭만으로 생각하던 철없던 시절이었다.

병동을 지정받고 봉사를 시작했는데, 서툰 나의 행동을 주시하는 시선이 있었다. 김 아저씨였다. 아주 조그마한 몸에 맑은 눈빛과 천사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김 아저씨는 원래 '출가자'였다고 했다. 출가한 지 일 년 만에 자신이 한센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소록도를 찾았다고 한다.

김 아저씨는 나를 만난 후 활력이 생긴 것 같았다. 새벽에는 라디오를 틀어 불교방송의 예불문을 들으며 예불을 하시고, 나를 보면 고개를 끄덕이고 인사도 하셨다. 움직여지지 않는 손을 모아 합장을 하시는 모습에 어떨 때는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였다.



그림 · 최주현

하루는 점심 식사를 끝낸 김 아저씨가 무척 들뜨고 분주한 표정으로 나에게 휠체어를 태워달라고 하였다. 아저씨의 특별한 언어들을 알아듣기 어려운 나로서는 좀 당황스러웠지만, 아저씨가 가자는 대로 휠체어를 이동해 보기로 했다. "어"하는 소리가 부드러우면 맞는 것이고 톤이 높고 격하면 아니라는 표현이었다. 결국 그런 의사소통으로 어렵사리 도착한 곳은 외래병동의 커피자판기 앞이었다. 나에게 커피 한잔을 사주고 싶은 것이 아저씨의 간절한 마음이었음을 알고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했다.

커피를 마시고 바닷가 주변을 산책하다 잠시 멈추어 휠체어를 마주하고 긴 의자에 앉았다. 김 아저씨가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어했다. 귀를 쫑긋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스님 업이 뭡니까?" 어눌하지만 선명하게 들리던 그 질문에 나는 그만 말문이 막혔다. 화두의 답을 일러보라고 말하는 스승의 다그침에 말문이 막히는 제자처럼 나는 답을 하지 못했다. 그 후, 목에 큰 가시가 걸린 듯한 불편한 마음으로 봉사를 이어가게 되었다.

그러던 중 병동에서 환자 식사 준비를 할 때, 환자식으로 나온 곰국에 발을 데어 며칠 치료를 받고 2차 감염 등의 위험을 운운하는 걱정에 묻어 나는 결국 소록도를 나오게 되었다.

"업이 뭡니까?"라는 말은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고통의 당체가 살아움직이는 병원이라는 수행처를 선방삼아 공부하게 된 그 이유를 이제야 나 스스로도 이해하게 된 것 같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인쇄 주문접수 중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11~11/1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크신 사랑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2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천시아	젠북
3	낡은 옷을 벗어라 : 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4	요가디피카 (아헹가요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5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스님/정원규	불광출판사
6	한권으로 일목 요연하게 보는 불교의 이해	도후스님	운주사
7	네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대념처경과 그 주석서)	각묵스님	초기불전연구원
8	한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일아스님	민족사
9	적명을 말하다 (선사들이 들려주는 수좌 적명의 삶)	유철주	사유수
10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

책세상

해방전후 북한 불교 총망라



북한불교백서
—조선불교도연맹을 해부하다
중화 법타 지음 /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8천원



북한불교 핵심 '조선불교도연맹'
북한불교 유일 종단 · 종무기관
조불련, 역사 · 생성 · 현재정리
북한의 체제와 종교 공존 유도
평화통일 위한 우리 필수 과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북한불교의 핵심인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 의 역사적 뿌리와 생성 과정 및 현재 상황을 종합 · 정리한 책이 나왔다.

책은 한반도의 통일이 국가와 민족 번영의 '키워드' 라는 전제에서 오늘날 북한불교의 존재, 불교신도들의 역할 등을 재조명한다. 또한 해방 전후부터의 북한의 종교 역사와 정책, 종교 단체의 현황을 짚어보고 북한 주민들이 체감하는 종교 현실 등에 대해 살피고 있다.

책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 '서론' 에서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제2장에서 북한의 종교관과 종교 정책에 대해 조명한다. 제3장에서는 조불련이 있기까지의 역사를 짚고, 제4장에서는 조불련의 역사와 조직을 살핀다. 제5장에서는 남북 불교 교류와 협력, 북한불교의 지속 가능성을 진단한다. 제6장 '결론' 에서는 본 연구의 의미와 활용 방안에 대해 밝히고 있다.

북한의 불교를 들여다보아야 하는 이유, '조불련' 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원만하고 발전적인 한반도 통일에 필요한 여러 가지 노력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책은 북한에서 불교의 유일한 종단이자 종무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조불련' 을 이해하는 것이 곧 북한불교를 이해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70개도 안 되는 사찰을 보유한 북한의 불교를 남한의 불교와 비교해 볼 때, 외형이나 사회적 영향력은 왜소하고 사회적 기능도 단순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불련' 이 우리가 상대하고 교류하고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것이다. 책은 이러한 의미에서 '조불련' 의 존재가치는 소중하고, 조불련에 대한 심층 연구와 분석이 남한불교계의 숙제라고 말한다.

해방 전후, 진보적 · 사회주의적 승려들은 1948년 김구, 김규식 박사 일행을 따라 김일성이 제창한 '전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에 참여했다. 그중 일부 승려는 북한에 잔류하여 '북조선불교도연맹' 결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오늘의 북한 '조불련' 의 원조가 됐다. 저자 법타 스님<사진>은 " '조불련 중앙위원회' 는 북한 전체를 관장하며 종교단체이자 사회단체로서 통일운동의 역할을 맡고 있다. 북한불교를 이해하는 데 조불련의 조직과 역할을 재조명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앞으로 남북한의 종교 교류를 정상화하고, 북한 종교에 대한 연구들을 풍부하게 만들며, 향후 이 같은 연구들로 사회주의 체제와 종교가 공존할 수 있음을 밝히는 것, 또한 이를 북한에 제공하여 종교 활동이 자유롭게 자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가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 말한다.

1972년 '7 · 4 남북 공동 성명' 이 발표되고 남 · 북한 상호 방문이 시작됐다. 2000년 6월, 남북 분단 55년 만에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 이 열리면서 '6 · 15 남북공동선언' 이 발표됐다. 이후 남북 교류 · 협력은 종교 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활발해졌다. 남북한 종교계는 각 종교마다 이에 대비하고 기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쏟아냈다. 남한 정부의 통일을 위한 노력과 북한 당국 차원에서의 종교 정책 변화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졌다. 그 당시, 남북한 불교 교류의 역사적 현장에 자리했던 산증인이자 저자 법타 스님이다.

법타 스님은 1965년 법주사에서 추담 대종사를 은사로 득도했다. 동국대 인도철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1996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 클레이턴 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후, 2020년 2월 동국대 대학원 북한학과에서 승려 최초 북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조계종 총무부장, 은해사 주지(3임), 동국대 정각원장을 각각 역임하고, 2017년부터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8년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현재 은해사 회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 (사)평화통일불교협회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북한불교 연구〉, 〈북한의 절과 불교〉 외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신륵사는 왜 신륵사로 불릴까?



한국불교전설99
최정희 엮음 / 우리출판사 펴냄 / 1만6천원



'내 고장 불교 전설' 연재 99편 묶어
1986년 초판 발행 최초 연기설화집
34년 동안 10쇄, 개정판 1쇄 재출간
삼국유사, 신문 · 경전 등서 발췌해
〈문화원형백과〉 '불교설화편' 실려

찬즙대사와 동자, 수덕사의 버선꽃, 자장율사와 금개구리, … . 1986년, 불교전설 99편을 묶은 책이 출간됐다. 〈한국불교전설 99〉이다. 책에 실린 99편의 전설은 1984년 1월부터 1986년 3월까지 불교신문의 '내 고장 불교전설' 에 연재됐던 것들이며, 그것들을 묶은 책은 최초의 연기설화집이다.

당시 출판계와 언론으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던 책은 2003년까지 10쇄를 찍으며 조용히 스테디셀러가 됐다. 그리고 2020년, 책은 표지를 바꾸고 활자를 고쳐 다시 인쇄기에 걸렸다. 개정판 1쇄(11쇄)다. 저자 자신도 한 동안 잊고 살았던 책이 다시 세상에 나온 것이다. 이번 개정판을 계기로 무려 34년 동안 인쇄를 이어가고 있는 책은 이제 책 자체가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개정판에는 이야기마다 관련 자료사진과 주소를 첨부해 답사를 원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시대가 아니었던 연재시절 당시 저자 최정희 작가(당시 불교신문 기자, 필명 애란자)는 일반 설화집과 삼국유사를 비롯한 사료, 각종 매체, 지역 자료, 경전 등에 흩어져 전해오는 불교 관련 설화들을 일일이 발로 뛰며 수집했다. 그렇게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한 편 한 편 전설이 정리되고 완성됐다.

"아마 요즘 무학이 새 도읍지를 찾아 다니는 모양인데, 좋은 곳 다 놔두고 엉뚱한 곳만 찾아다니니 어찌 미련하고 한심한 일이 아니겠소."

이성계의 청을 받아 새 도읍지를 찾아 나선 무학대사, 그 과정에서 생겨난 이름 '설울' 은 오늘날의 서울, 무학대사가 10리를 더 걸어간 곳 왕십리, 신륵사가 신륵사인 이유, 나옹 스님의 효심과 영월암 마애지장보살 …. 우리 땅에 붙여진 이름들 속에는 우리가 살아온 모습과 지나온 시간들이 있고, 하나의 절이 지어지기까지는 많은 꿈과 인연들이 있었다. 그렇게 책 속의 전설들은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또한 그 이야기들 속에는 많은 법문이 대화 곳곳에 숨은 그림처럼 그려져 있다. 짧은 전설 한 편에는 우리의 역사와 불교 등 우리의 정체성이 들어있다.

그렇게 우리문화 속에 지명 · 창건연기설화가 많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문화의 전반이 불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불국토를 염원한 우리의 조상들은 삶의 둥지인 이 땅에 불법이 두루하길 기원했기 때문일 것이다. 때문에 그들은 팔도강산 처처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지명을 붙이고 그 명칭의 유래를 연기설화(緣起說話)형식으로 구전해 왔다.

저자 최정희<사진>는 지명이나 사찰의 명칭을 설명하는 설화가 단순히 명칭의 유래만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고 말한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전해온 이 땅의 불교전설은 흥미로운 이야기 속에 인과응보, 업보윤회, 보시공덕, 구법, 보살의 자비행, 효선의 의미를 담아 선(善)하고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며, 때문에 불교전설은 어느 고승의 법문보다도 설득력이 강한 민중교화의 법문으로 전승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책에 실린 99편의 전설은 불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존재해 왔고 전개되었는가를 엿보게 하는 한편 역사적 · 문화적 자료로도 음미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그러한 가치들은 교육적이고 교화적인 가치와 창작물의 모티프로도 확장되는 등 문화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중한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책에 실린 전설들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창작소재의 보고로 선정되어 〈문화원형백과〉 '불교설화' 편에 실렸다.

저자 최정희는 불교신문 공채기자로 20년 간 근무했으며, 현대불교신문 초대 편집국장과 편집이사로 일했다. BBS불교방송 '자비의 전화' '피안을 향하여', 생방송 '지금은 불교시대' 에 이어 9년간 'BBS초대석을 진행했다. 문화관광부장관 표창, 포교대상 원력상, 불교언론인상을 받았다. 지은 책으로 〈잘사는 법 99〉, 비구니 원로 광우 스님 출가 70년 대담 〈부처님 법대로 살아라〉 등이 있다.

박재완 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IBS, 뇌과학자)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 (02)741-0495~6

日, 토다이지 연례법회 '슈니에' 비공개 검토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조치

752년 처음 봉행…最古 법회
입재 2주 전부터 격리 방안도
'불퇴의 행법' 지속 의지 확고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 천년고찰이자 노사나대불로 유명한 토다이지(東大寺)에서 매년 봄에 열리는 특별법회 '슈니에(修二会)'가 내년에는 비공개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11월 5일 일본의 'NHK' 등 주요 언론사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내년 봄 슈니에 형태를 변경될 예정임을 특별보도했다.

토다이지의 슈니에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슈니에 법회로 기록상 752년에 최초로 봉행됐다. 일본왕실의 발원으로 시작된 이 법회는 음력 1월을 기점으로 진행된다. 악업을 참회하고, 불보살을 공양한 공덕을 나라를 위해 회향해 한 해의 평안과 풍작을 기원하기에 매년 봄 일본 각지에서 봉행되고 있다.

토다이지는 매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11면관세음보살을 모신 니가츠도(二月堂)법당에서 슈니에를 봉행한다. 수행과 학덕이 뛰어난 11명의 스님을 엄선해 매일 6차례 법당을 요잡하며 참법(懺法)을 독송한다. 이 슈니에는 천여 년이 넘는 세월동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끊이지 않고 봉행돼 의미가 깊다. 18세기엔 슈니에가 봉행되기 전날 화재로 니가츠도 법당이 전소했음에도 장소를 바꾸어 봉행했다. 물자와 인원이 부족했던 2차 세계대전 시기에도 대중스님들의 노력으로 봉행돼 '불퇴의 행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특히 토다이지의 슈니에에서 유명한 것은 관세음보살에게 올릴 공양수를 긷는 법요와 한 해의 액을 막기 위해 커다란 횃불을 들고 니가츠도의 난간을 질주하는 행사다. 특히 대나무 횃불에서 떨어지는 불똥이나 재를 맞으면 한 해 동안 건강하고 행운이 깃든다는 속설이 퍼지면서, 횃불을 보기 위해 연간 약 3만 명의 신자와 관광객들이 방문한다.

그러나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내년 봄에 봉행될 슈니에를 위해 토다이지는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토다이지의 하시무라 코에이 스님은 "슈니에는 예년과 같이 같은 시기에 같은 규모로 봉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슈니에가 봉행되는 니가츠도 법당을 살펴보는 스님들과 관계자들. 사진출처=NHK 보도영상 캡쳐

특히 슈니에에 참석하는 11인의 스님들은 약 한 달간 함께한 법당에서 숙식을 같이 해야 하는 만큼 토다이지 측은 감염병 전문가의 전문적인 의견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 이달 중순에 정확한 계획을 공표할 예정이다.

토다이지의 의뢰를 받은 나라현립대학병원 감염증센터의 카사하라 케이 센터장은 "슈니에를 봉행하는 스님들 중 한 사람이라도 감염자가 나오게 되면 나머지 스님들도 모두 격리조치에 들어가는 만큼 슈니에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밝혔다. 또한 "각 작법과 의례에서 스님들이 위치하는 장소나 행동이 세세하게 정해져 있어 거리두기나 철저한 마스크 착용 등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토다이지와 나라대 감염증센터가 세운 대책으로는 슈니에에 참석하는 대중전원이 입재 2주전 자가 격리와 PCR검사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카사하라 센터장은 "약 한 달간 합숙형식으로 법요가 진행되는 만큼, 감염방지 대책도 대책이지만 외부에서의 바이러스 유입을 최대한 막는 것이 중요하다. 불퇴의 행법이라는 이 전통이 이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日정토종 총본산, 350년만의 복원 회향

10월 25일 낙성법회 봉행
창건 당시의 모습 되찾아

일본 정토종의 총본산인 지온인(知恩院)에서 뜻깊은 법요식이 봉행됐다. 약 9년간의 대공사 끝에 창건 당시 미에이도(御影堂)의 모습을 되찾은 것이다. 지난 25일 일본의 '산케이 뉴스', '교토신문' 등의 주요 언론들은 미에이도에서 열린 낙성보고법회의 모습을 일제 보도했다.

지온인에서 가장 큰 건물이자 중심건물인 미에이도(御影堂)는 일본 정토종의 종조인 호넨스님(法然: 1133-1212)의 조상을 봉안하는 전각이다. 사찰을 대표하는 전각이기에 본당(本堂)이라고도 불린다. 미에이도는 1639년 재건된 이래 부분적인 보수는 이루어졌으나 전면적인 수리는 이뤄진 바 없다.

정토종은 지난 2011년 호넨 스님 원적 800주기를 맞아 미에이도의 수리를 결의, 8년을 예상기간으로 잡고 대대적인 수리공사에 들어갔다. 2011년 12월 25일, 미에이도의 호넨 스님상을 청소하고 수리를 알리는 고불식을 봉행한 후 내부의 불상들을 이운하면서 공사가 시작됐다. 이번 수리공사에선 미에이도의 모든 기와와 불구, 불상, 내부장엄 등 약 380년만의 대규모 수리가 이뤄졌다. 또한 수리와 함께 내진설계의 보강과 같은 현대 기술의 적용도 진행됐다.


대중들이 모여 엄숙히 봉행한 미에이도 낙성보고 법요의 모습. 사진출처=산케이 신문

지난 4월 13일, 모든 보수공사가 완료되어 창건 당시의 모습이 완벽히 복원됐다. 지온인과 정토종 측은 대규모 낙성식과 각종 행사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중지 및 축소됐다. 대신 정토종의 문주(門主: 한국의 종정)인 이토 유이신 스님을 법주로 한 낙성법요식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낙성식 법요에선 다른 전각에 임시 봉안했던 호넨 스님상을 다시금 미에이도로 이운하여 모시고 미에이도의 문을 여는 의식이 봉행됐다.

지온인 측은 25일 봉행된 낙성보고법요에 대해 "낙성법회와는 별도로 낙성보고법회를 통해 축소되었던 낙성식의 기쁨을 다시금 되살리려 했다. 코로나 19가 잠시 진정된 때를 맞춰 봉행한 것"이라며 법요봉행의 취지를 전했다.

이 날 미에이도에선 문주인 유이신 스님을 법주로 종단의 주요 소임자들과 공사관계자 등 50인이 법요에 참석했다. 유이신 스님은 "오랜 공사 끝에 종조의 상이 미에이도에 돌아오고, 법당의 문도 다시 열렸다. 살아있는 법당이 되었다. 살아있는 법당에서 법요를 모시게 되어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고 인사했다. 유이신 스님은 또 "어지러운 세계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이를 위해 많은 분들이 미에이도에서 염불을 외워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온인 측은 "낙성보고법회에 따라 문화공연이나 각 지역별 교구의 단체참배 등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지, 혹은 내년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미얀마 민족주의 승려 '아신 위라투' 자수

극단적 혐오발언으로 지난해 체포명령

지난 11월 3일 아시아 국제 온라인 뉴스 '더 디프로매트'는 미얀마의 극단적 민족주의자 승려 아신 위라투 스님이 자수했다고 보도했다. 아신 위라투 스님은 미얀마의 극우파이자 민족주의자로 2019년 5월 28일 체포 명령을 받은 지 18개월 만인 11월 2일 경찰에 자수했다.

아신 위라투 스님은 자수하기 직전 모인 사람들에게 "정부가 11월 8일 선거에서 미얀마 국민들에게 아웅산 수치 여사와 그녀의 악랄한 전국 민주 연맹(NLD)정부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요구하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또한 "내가 이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를 이렇게 몰아넣은 것이다. 나는 경찰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협조할 것"이라고 연설한 후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라투 스님은 2001년 미얀마 불교계 전체가 참가한 대대적 반이슬람주의 테러인 969운동을 주도했고 그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2010년에 정치범 석방 명단에 포함되어 석방된 후에도 미얀마 내 이슬람교도에 대한 혐오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2013년 미얀마의 정치 개방 당시 미국 주간 잡지인 타임지에 '불교 테러리즘의 얼굴'로 표지 모델로 올랐다.


미얀마 중북부 만달레이에 있는 마소예인 사원에 걸린 위라투 스님의 지명수배 포스터 사진출처=더 디프로매트

국제 위기 분석가인 리처드 호시는 "위라투 스님의 자수는 11월 8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보여지나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도 위라투 스님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슬람교도, 특히 로힝야족들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메세지를 전달하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태국, 불교성지 하늘 순례길 열려

32개주 99개 성지 상공비행
수행 침해 등 비판 목소리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파산 직전에 놓인 태국 국영 항공사 타이항공(THAI)이 하늘 순례길 코스를 개시했다. 지난 11월 5일 'UCA 뉴스'는 태국 국영 항공사의 신규 노선인 하늘 순례길 코스를 보도했다.

'태국의 신비로운 비행(THAI Magical Flying Experience)'으로 명명된 이 코스는 태국 32개주를 중심으로 99개의 불교 성지를 상공으로 순회하는 성지순례 코스이다. 해외운항 노선이 사실상 막힌 현재, 착륙이 없는 국내 순회 비행을 통한 관광상품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으며 개발된 성지순례 프로그램이다.

최근 코로나19를 막아주는 영험이 있다고 알려진 사찰이나 호신부가 인기를 끌면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타이항공은 이번 하늘 순례길로 새로운 해결책을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타이항공은 현재 10억 달러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파산을 전망하고 있는 상태다.

위왓 피야와로지 타이항공 영업부사장은 "하늘 순례길은 중간 착륙지 없이 3시간동안 비행한다. 이코노미 클래스는 300달러, 비즈니스 클래스는 930달러이며 기내식과 예불집, 특별한 호신부를 함께 제공한다. 또한 유명 점성술사 카타 친반촌이 함께 탑승해 탑승객과 함께 염불을 외우며 불교 성지 상공을 비행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치앙마이에서 북쪽으로 70km 떨어진 곳에 있는 치앙다오 동굴 사원. 불자들이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다. 사진출처=AFP

하늘 성지순례는 오는 11월 30일 방콕 수바르나부미 공항에서 이륙해 태국 동부와 남부의 99개 성지 상공을 비행한 뒤 복귀 비행을 한다. 이번 특별 비행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일각에서는 "공중에서 성지를 내려다본다는 생각이 불경하다"는 반박도 일고 있다. 한 불자는 "성지를 보기 위한 저공비행은 수행처의 정진 분위기를 망치고, 불교의 영적 가치를 상업화하여 불교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회의적인 의견을 비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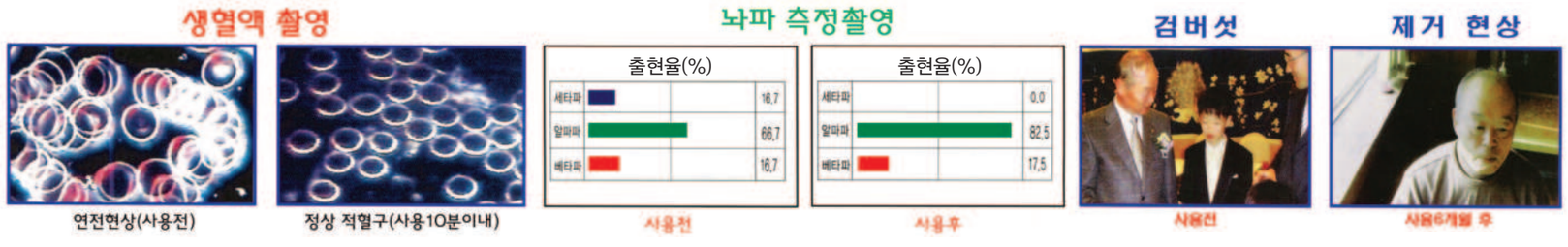
김민재 객원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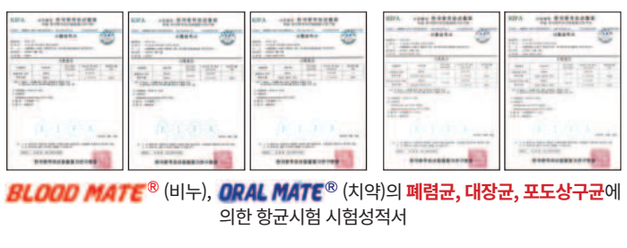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BLOOD MATE® (비누), ORAL MATE® (치약)의 폐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에 의한 항균시험 시험성적서

혈액을 맑게하여 혈액순환을 정상화시켜주고 혈액,세포,뇌파를 건강하게하는 게르마늄허브비누
포도상구균 99.9% · 폐렴균 99.9% · 대장균 99.9% 정균감소기능으로 아토피, 무좀, 검버섯, 뾰루지,
여드름,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 발뒤꿈치 각질개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정상적혈구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목·어깨·허리 통증과 무릎관절, 다리에 쥐나는 것이 없어지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나다.
※ 41년 3월생 개발자 본인은 관절 불편을 느껴보지 못했고, 안경없이 신문을 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35,000원2개 = 70,000원
BLOOD MATE® 순비누:15,000원4개 = 60,000원
ORAL MATE® 치 약:21,000원3개 = 63,000원
19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에이스 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정각 이룬 나한, 신앙이 되다



조성금의
한국불화 원류를 찾아서
㉒ 부모은중경변상도

석가모니 부처님에 이어서 정각을 이룬 이들을 '아라한(Arhat, 阿羅漢)', 일반적으로 '나한'이라고 칭한다. 나한은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란 의미를 지니며, 석가모니의 열반부터 미륵부처가 나타나 중생을 제도할 때까지 이 세상의 불법을 수호할 위임을 받은 분들이다.

나한이란 말은 본래 석가모니를 부른 존칭이었으나, 〈비나야 대품〉 등의 초기 불전에 의하면 사르나트(녹야원 설법 혹은 초전법륜)에서의 첫 설법을 함께한 다섯 수행자인 카운디누야 · 밥파 · 밧디야 · 마하나마 · 아쉬바지트가 깨달음을 얻어 석가를 포함한 여섯 사람의 아라한이 생겼다고 한다.

나한의 기원은 위의 다섯 사람의 수행자에서 시작하여 이후 석가의 직제자 가운데 정법을 지키기로 맹세한 십육나한과 부처의 열반 직후 왕사성에 모여 1차 불전을 편찬한 오백나한까지 확대되었다. 간다라 지역에 남아있는 초전법륜상에 표현된 다섯 수행자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세 구복이나 신통력과는 상관이 없는 수행하는 승려형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뿐이다. 과연 언제부터 나한이 신앙의 대상이 되어 다양한 신통력과 지물을 지닌 모습을 갖추게 되었을까?

나한에 대한 신앙은 선종의 성행으로 심화되었다고 한다. 선종은 부처와 자신의 동일성을 강조하는 이념 중 하나가 화북지방에서 발전한 것으로, 선종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인 도선(道宣, 596~667)이 편찬한 〈속고승전〉에 남인도 출신 보리달마(菩提達磨)가 선정으로 유명하였다고 한다.

보리달마는 527년 양(梁)나라 무제(武帝)와 만난 뒤 뤄양(洛陽)의 사오린사(少林寺)에서 9년 동안이나 좌선을 했다고 전해지며, 이러한 연유로 오늘날 사오린사가 중국 선종의 본산이자 소림 무술의 발상지가 되어 16명의 나한 복장을 한 수련생들이 관광객들에게 무술공연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선종은 9세기 중엽에 신라의 승려가 중국에서 수용해 온 뒤 나말여초 9산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선종의 유행으로 나한의 신앙화는 고려에서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

나한 신앙은 현장(玄奘)이 654년에 한역한 〈대아라한난제밀다라소설법주기(大阿羅漢難提密多羅所說法住記)〉 이후 유행하였는데, 이 책은 기원 후 4세기 경 사자국(스리랑카)의 난제밀다라가 설한 것으로 첫 번째 존자 빈도라발라타사(賓度羅跋囉惰闍)부터 열여섯 번째 존자 주도반탁가(注荼半託迦)까지 16나한의 명칭 · 거주지 · 권속 수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16나한의 능력에 대해서 16나한 모두가 해탈하여 한없는 공덕을 갖추었으며, 삼장(三藏)을 외우고 지녔을 뿐만 아니라 외도(外道)들의 전적(典籍)에도 널리 통하였다고 적혀있다. 그리고 부처

초전법륜의 다섯 비구가 '기원'
십육나한 · 오백나한으로 확대
선종의 발전… 신앙 '자리매김'
韓나한도, 당말~송초 성립돼
원대 오백 · 천이백 나한 확장

님의 교시를 받들어 신통력으로 자기의 수명을 늘려서 석가모니의 바른 법이 언제나 머물러 있도록 잘 보호하면서 시주(施主)들에게는 큰 과보를 얻게 한다고 하였다.

4세기 경 성립된 〈대아라한난제밀다라소설법주기〉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나한의 특정한 신통력이나 현세 구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어, 적어도 4세기 경까지는 특정한 나한에게 고유한 능력을 부여하거나 도상적인 구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밖에 구마라집(鳩摩羅什)이 한역한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오백제자수기품(五百弟子受記品)'에서는 "…오백의 아라한인 우루빈라가섭(優樓頻螺迦葉) · 가야가섭(伽耶迦葉) · 나제가섭(那提迦葉) · 가류타이(迦留陀夷) · 우타이(優陀夷) · 아누루타(阿冕樓馱) · 리바다(離婆多) · 겁빈나(劫賓那) · 박구라(薄拘羅) · 주타(周陀) · 사가타(莎伽陀) 등



일본 지온인에 소장된 '오백나한도'. 고려 14세기 후반에 조성됐다. 석가 삼존을 중심으로 3~4명씩 무리를 지은 나한들은 매우 사실적이며 유기적으로 표현돼 있다.

도 반드시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모두 얻으리니, 그 이름 또한 모두 보명이리라"라고 오백나한을 모두 '보명'이라 부른다고 적혀있을 뿐이다.

또한 일본인 유학승 엔닌(圓仁, 794~864)의 〈입당구법순례행기〉에 중국에 머물렀던 838~847년 사이의 기록에 많은 사찰에서 나한도와 나한상을 모셨다고 적혀있어 이미 나한 신앙이 유행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나한과 관련된 초기의 경전 및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산속의 동굴이나 신비스러운 노송 아래 동자와 호랑이를 거느리고 앞에는 경책과 석장을 지닌 초월자 나한의 모습은 당말~송초 무렵에 성립된 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 신장성 위구르자치구의 천산산맥 북쪽의 북정(北庭, Besh-baliq) 서쪽에 위치한 위구르 왕실의 불교사원 서대사(西大寺)는 9세기 말에서 10세기 초 사이에 건립된 인공의 석굴사원으로, 그 내부에 소조로 만든 16나한상과 나한을 그린 벽화가 남아있다. 소조의 나한상 뒤로 험준한 산맥과 기이한 나무 아래 구불구불한 백발의 머리와 눈이 크고 코가 높은 나한이 석장으로 용을 부리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신통력을 지닌 중앙아시아 승려의 모습은 이후 오대 북송시기에 제작된 나한도에서는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 고승들의 이미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며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었고, 원대와 명대를 거치며 좀 세부적이며 구체화되었다.

현존하는 고려와 조선의 나한도들을 볼 때 중국의 당말 오대북송 시기에 성립된 나한도상이 중원의 원 · 명 · 청으로 계승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석가를 포함한 다섯 수행자에서 비롯된 나한은 원대에 이르러 십대제자, 십육나한, 십팔나한, 오백나한, 천이백오십나한 등 여러 종류로 확대 · 발전하였다.

고려와 조선의 나한도는 대략 세 가지의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한 폭에 한 분의 나한을 그리는 형식이다. 둘째 한 폭에 석가삼존(석가모니와 좌우에 문수와 보현보살)과 오백의 나한을 모두 그린 그림이다. 셋째 한 폭에 석가삼존과 십육나한을 그린 것이다. 이러한 그림이 모셔지는 전각을 나한전 혹은 응진전(應眞殿)이라 하며, 오백나한의 경우 오백나한전 · 오백성중전(五百聖衆殿)이라 부른다.

우리나라는 오백나한과 관련해서 가장 이른 기록으로 〈삼국유사〉의 탑상편에 오백나한을 오대산 백련사에 모셨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고려도경〉 권17 광통보제사조(廣通普濟寺條)에 923년 양(梁)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고려문신 윤질(尹質)이 오백 나한상을 가져와 해주 숭산사(崇山寺)에 안치하였으며, 개경의 남쪽에 있던 광통 보제사 나한전에는 오백나한상과 오백나한도가 그려져 있었다고 한다.

또한, 고려 왕실에서 오백나한재 및 나한재를 열어 기우와 외적의 퇴치를 기원했다는 기록 등을 통해서 나한의 신앙화와 유행은 중국과 시기적으로 크게 차이 나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나한도의 최고작이며 전 세계에서 유일한 작품을 고른다면 고려 시기에 제작된 '오백나한도'라고 하겠다. 이 그림은 하나의 화면에 다양한 산수를 배경으로 석가삼존과 십대제자, 십육나한, 오백나한을 생동감있게 표현한 것으로, 각 존자들의 설법 · 신통력 · 선정 · 일상생활 등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오백나한의 도상학적 근거는 없지만, 송나라 문신 진관(秦觀)이 쓴 문집 〈회해집(淮海集)〉에 그가 감상한 오백나한도를 기록한 '오백나한도기'의 내용과 고려 〈오백나한도〉가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 송에서 고려에 전해진 한 폭 형식의 오백나한 도상이 동아시아 중에서 고려 불화에서 유일하게 전해져 오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객원교수〉

국내최초 · 벤처기업
한국스틸 고건축
저렴한 비용!!
사업부
스틸대웅전 | 스틸한옥
일주문 | 한옥카페 | 문중재실
전시장 | 한옥인테리어 | 농막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 바늘 끝같은 정교함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로 470 상담문의 010-5023-5050

백의 관세음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천수 감로수
백의 관세음보살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효험 천수 감로수를
꼭 필요한 분에게 무료로 보시합니다.

천수 감로수를 개발한 지혜스님은 허약체질로 태어나 평생을 만성피로에 허덕이고 소화기능도 약해 잘 체하고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했으며 잦은 위통으로 음식 먹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수년간 병원과 한의원을 다녔어도 고통의 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상생활에 매우 지장이 될 정도로 위염에 많은 고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천수 감로수를 꾸준히 복용하고부터 만성 위통과 위염이 사라지고 현재 나이가 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더 가벼워져 활기찬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체에서 위가 안 좋으면 몸의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를 못하여 모든 장기가 제 기능을 발휘 하지 못합니다. 지혜스님의 기도와 정성으로 만든 천수 감로수는 위장병, 아토피,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장청소 등 모든 장기 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위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복용하고 효험을 본 천수 감로수를 조심스레 추천 드립니다. 탄산약수로 기도와 정성으로 천수 감로수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불자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 하려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십시오.
연화정사 신도 합장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상담전화 010-7455-6742 (지혜스님)

화쟁 대화법 '포용'서 시작된다



윤성식의
붓다의 정치학

㉒ 갈등과 화쟁



그림 · 박구원

스탠포드 대학에서 '죄수와 간수'라는 전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실험을 했다. 실험대상을 무작위로 죄수와 간수로 나눈 뒤에 각각 죄수와 간수 복장을 입혔다. 간수는 자유롭게 죄수를 다루도록 했는데 처음에는 간수와 죄수 모두 장난조로 역할을 시작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양상은 심각하게 변질되었다. 간수가 죄수를 학대하고 양쪽 집단에 적대감이 형성되었다. 실험은 계속 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간수가 죄수를 너무 심하게 다루자 사고 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이 실험이 유명해진 것은 현실 속에서 이 실험과 동일한 현상이 마치 복제된 것처럼 나타난 탓이다. '그건 실험일 뿐이야'라는 말이 전혀 맞지 않았다. 실험은 실험이 아니라 현실의 정확한 묘사였다. 이라크의 포로수용소에선 여군을 포함한 여러 명의 미군 병사가 이라크 포로를 학대했다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중 한 여군은 포로를 벌거벗기고 개줄로 묶고 끌고 다니면서 조롱했는데 그녀의 부모는 자기 딸은 그런 아이가 아니라며 충격을 표시했다. 쿠바의 미군 관타나모 수용소에서는 포로 중 학대를 견디다 못해 세 명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와 유사한 각종 실험이 많다. 어린 아이도 두 집단으로 나누면 서로 적대적이고 증오의 감정을 가질 정도로 갈등을 겪는다. 방학 때 캠프에 온 어린아이를 두 집단으로 나눈 실험에서도 '죄수와 간수의 실험'에서 목격한 동일한 현상이 관찰되었다. 나이가 많건 적건 남자건 여자건 인간은 두 집단으로 나뉘면 적대적이 되고 증오의 감정을 가진다. 무작위로 나누어도 이런 감정을 보이는데 하물며 인종이 다르고 출신 지역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에서도 지역갈등은 망국병이라고 말할 정도이다. 나이가 많건 적건 남자건 여자건 자신과 다른 집단을 조롱하고 증오하는 모습은 이라크 포로수용소나 관타나모 수용소의 현상과 동일하다.

부처님은 인도의 작은 국가가 전쟁을 통해 병합되면서 큰 나라로 바뀌어가는 정치환경에서 평생을 보내셨다. 자신의 모국인 카필라 국이 코살라 국에 의해 거의 멸족 수준으로 철저하게 파괴된 것을 목격하셨다. 전쟁의 참상을 보며 부처님은 인간과 세계에 대해 고민하셨으며 연기법이라는 놀라운 불교의 진리를 발견하셨다. 국가 간의 전쟁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은 서로 나뉘어서 싸우고 증오한다. 이유가 있을 때도 싸우고 증오하지만 별다른 이유가 없어도 분열한다. 분열은 이익과 어떤 형태로든 결합하기 때문에 싸움과 증오를 낳는다. 우리는 실험과 미군 포로 수용소 사례에서 보았듯이 별다른 이익이 없는데도 인간은 싸우고 증오한다.

연기법은 간수와 죄수가 별개가 아니라고 본다. 간수는 왜 간수인가? 죄수가 있기 때문에 간수이다. 죄수는 간수가 있기 때문에 죄수이다. 만약 죄수가 줄어들어 절반이 되면 간수의 절반은 직장을 잃는다. 알고보면 죄수는 간수에게 소중한 존재다. 죄수는 간수에 의해 다른 악질 죄수의 괴롭힘을 어느 정도는 막아낼 수 있으니 알고보면 간수도 죄수에게 소중한 존재다. 죄수라는 단어에는 이미 간수의 요소가 있고 간수라는 단어에는 이미 죄수의 요소가 있다. 싸우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간수와 죄수로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런데도 아무런 이유가 없을 때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싸우고 증오한다. 오직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싸우고 혐오하고 조롱하는게 인간이다.

아무리 부처님 앞에서 3천배를 하고 밤새워가며 기도를 하고 장좌불와에 용맹정진을 한들 인간 집단 사이에서 오직 다르다는 이유로 싸우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조롱한다면 불자가 아니다. 부처님은 가짜 출가자와 가짜 재가자에 대해 준엄하게 비판하셨다. 대한민국 정치가 서로 나뉘어 싸우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조롱하는 정도가 도를 넘었다. 불자라면 적어도 부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원효 대사는 백제와 고구려가 망하고 전란의 참상이 아직도 남아 있던 시기를 사셨다.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이 신라의 국민과 어떻게 차별되는 집단으로 살았을 것이 충분히 상상이 간다. 중국에 천태 대사가 있다면 우리에겐 자랑스러운 원효 대사가 있다. 원효 대사의 화쟁 사상은 종파 간의 대립과 싸움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서로 나뉘어 싸우고 혐오하고 증오하고 조롱하는 중생 사이의 대립에도 적용할 수 있다. 원효 대사의 화쟁 사상은 편견과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진정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여실지견이 없으면 화쟁은 불가능하다. 원효 대사는 제도권 불교권력에서 벗어나 중생 속으로 뛰어들어가 불교의 대중화에 노력하였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불자라면 우리 불교사에 가장 자랑스러운 원효 대사의 화쟁 정신으로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은 해야 한다.

> "절대 진리 없다는 생각과 자신의 견해도 틀릴 수가 있다는 인식에서 온유와 포용의 대화방법이 나와"

정치는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닌데도 우리는 상대의 약점과 문제점을 찾아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내려고 안달하는 싸움을 하고 있다. 독재는 악이고 싸워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우리가 요즘 접하는 수많은 정치적 갈등은 상대적인 가치관과 선호의 문제이다. 정치를 선과 악의 대결로 보면 양극단에 치우치며 중도를 벗어난다. 정치란 정답을 찾자는게 아니라 서로 다른 해법을 최대한 중재하고 갈등을 최소화하여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어차피 절대 진리란 없는데 우리가 목을 매어 집착해야 할 이념이나 가치나 정책은 없다.

우리는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대해 겸손해야 한다. 지나친 자신감을 가지고 주장하면 싸움이 된다. 내가 그토록 맞다고 생각하는 주장이 어쩌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결과일 수도 있다.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세상이다. 가짜뉴스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오늘날 정치 현상은 대부분 전문가가 분석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언론은 이 역할을 대신하지만 우리의 언론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포털 사이트 '다음'은 뉴스를 정리해서 보여주지만 '네이버'는 신문사별로 나열하기에 독자가 선택할 수 있다. 나는 과거에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을 먼저 읽고 조선, 중앙, 동아를 읽을 수 있게 순서를 설정했다. 왜냐하면 먼저 접하는 매체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약자의 신문을 먼저 읽어야 균형이 잡힌다고 생각했다. 요즘은 거꾸로 읽는다. 조선, 중앙, 동아를 먼저 읽고 한겨레, 경향을 읽는다. 강자의 신문을 먼저 읽으면 압도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한겨레나 경향에서 상반된 주장을 읽어도 웬만한 주장은 조선, 중앙, 동아를 읽으면서 형성된 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조중동을 먼저 읽었는데도 한겨레나 경향의 기사가 타당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는 정말 자신 있게 한겨레나 경향의 주장이 상대적으로 더 신뢰한다.

내가 먼저 읽는 언론이 내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선, 중앙, 동아를 먼저 읽는 이유는 또 있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였으며 노무현 대통령을 도와서 일을 한적도 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나를 친노라고 부른다. 그렇기에 나는 아무래도 한겨레, 경향의 논조에 더 기울기 쉽다. 그러나 나는 가능하면 내게 주어지는 모든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접하고 싶다. 따라서 조선, 중앙, 동아를 먼저 읽는다. 나의 이런 노력이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데 분명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원효 대사는 화쟁 사상을 주장하면서 사람은 상대의 주장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무조건 자신의 주장에 집착한다고 했다. 정치 논쟁에 있어서도 그렇다. 우리는 상대의 주장을 사실 심층적으로 잘 알지 못한채로 몇마디 말만 듣고 금방 단정해버린다. 나는 요즘 사람들과 정치 이야기를 가능하면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감한 주제는 몇시간이고 대화해야 겨우 내 생각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진정한 생각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피상적으로 몇마디 하다가 금방 선입관으로 결론이 나고 시간부족으로 대화는 중단되고 서로 오해한 채로 집으로 간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이야기해도 대화가 안되는 상대도 있다. 자신의 모든 생각은 미리 정해 놓고 상대방이 100%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그 어떤 주장에 대해서 1%도 인정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다. 가짜뉴스에 속아서 엉터리 논리를 펴고 있을 때 가짜뉴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짜가 아니라고 하거나 가짜라고 인정하더라도 다른 이유를 찾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과는 대화가 불가능하다.

이런 사람과도 대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대화하되 녹음하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면 인간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 물론 이런 환경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나친 억지를 부리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과는 대화가 불가능하다.

부처님은 비구끼리 다툼이 생기면 당사자를 모든 비구 앞에 세워 놓고 서로 자기 주장을 펴게 했다. 당사자끼리 싸우면 거짓말을 검증하기 쉽지 않지만 모든 비구 앞에 세우면 거짓말이 쉽게 들통난다. 어느 한쪽이 억지를 부릴 때 모든 비구가 이를 지켜보면 억지를 부린 사람은 추후 승가에서 외톨이가 된다. 나는 요즘 많은 사람에게 공개되고 내용이 기록되는 토론이 아니면 정치적 대화는 삼가고 있다. 가짜뉴스와 억지가 많은 사람에게 공개되고 기록되는 환경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대화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화가 나 있는 사람, 거친 언어를 쓰는 사람, 음성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는 사람, 흥분된 사람, 싸우고 싶어 씩씩거리는 사람과는 아예 대화하고 싶지 않다.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하고, 이 세상에 절대 진리란 없다는 생각도 해야 한다. 도무지 상대의 의견이 들어갈 여지가 한치도 없는 사람과 대화해서 무엇하나. 우리는 각자의 정치적 견해에 대해 자신 없어 해야 한다. 자기가 잘못된 정보에 기초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한다. 화쟁의 대화법은 겸손하고 온유하며 포용적인 말투에서부터 시작한다.

〈고려대 명예교수〉

부처님의 마음을 빚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선교능통 · 삼교회통 明代 최고 선지식



정운 스님의
인물로 읽는 禪이야기

㉒ 감산덕청 선사

덕청의 행적

감산덕청(憨山德清, 1546~1623)은 명나라 4대 고승 중의 한 명이다. 덕청은 선 · 화엄 · 염불 등 불교학뿐만 아니라 수행에도 깊으며, 지극한 염불행자이기도 하다. 덕청은 필자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스님이기도 하다.

덕청에 대해서는 10여 년 전에 〈감산자전〉이 번역되며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선지식이다. 책에서 덕청 선사는 직접 자신의 일생을 담담하게 기술하고 있다. 〈감산자전〉은 당시 명나라의 불교사와 상황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스님은 20~30대에는 출가 사찰인 남경 보은사 · 북경 · 오대산에서 수행했고, 40대에는 산동성의 뇌산에서 중생을 교화했다. 50대에는 광동성 뇌주로 유배되어 소주 조계산에 머물렀다. 60대에는 호남성의 남악에 머물렀고, 70대에 강서성의 여산 등지에 머물렀다.

덕청은 안휘성 금릉 전초현 사람이다. 이름은 덕청(德淸), 자는 징인(澄印), 시호는 홍각선사(弘覺禪師)이다. 덕청의 모친은 평생 관음 기도를 하였는데, 어느 날 밤 꿈에 관음보살이 동자 하나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덕청을 낳았다. 9살에 덕청은 사찰의 학당에 다니며 공부를 하였다. 그곳에서 덕청은 〈관음경〉 독송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능히 세간의 고통을 구한다(能救世間苦)' 라는 구절을 듣고 환희심을 내었다. 어린 덕청은 스님에게 책을 빌려 그 경을 모두 외웠다. 이후 모친에게 〈관음경〉을 독송해주자, 어머니는 매우 기뻐하였다는 일화가 전한다.

덕청이 12세가 되자, 부친은 신부감을 구해 아들과 정혼시키려고 하였다. 스님은 아버지에게 승려가 되겠다고 하였고 부친이 반대하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자기 포부를 펼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합시다. 아이를 원하는 대로 사찰로 보냅시다."

자식이 원하는 길이라 인정하고, 호탕한 마음으로 자식을 출가시킨 모친이다. 자서전에 보면, 덕청이 출가 후 모친을 처음 만난 것은 44세로, 덕청이 자신의 출가 본사에 대장경을 안치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 계기였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50세에 유배를 가는 길 위에서다.

덕청은 12세에 남경 보은사 서림 영녕의 제자로 출가하였다. 출가 후 덕청은 주요 불경을 모두 외웠고, 유교와 도교 경전까지 섭렵했다.19세에 덕청은 서하산(棲霞山)의 운곡법회(雲谷法會, 1500~1579) 선사를 만나 중본명본의 어록 〈중복광록〉을 배우고 참선에 뜻을 두었다. 이러면서 덕청은 '아미타불' 염불을 하였다. 그러다 어느 날 꿈속에서 아미타부처님을 친견했고, 다시 덕청이 관음 · 세지 두 보살을 함께 만났다. 이를 계기로 덕청은 염불수행에 확신을 가졌다.

이후 덕청은 출가 본사인 보은사로 돌아와 〈화엄현담(華嚴玄談)〉을 공부하였다. 덕청은 강의를 듣는 도중 십현문(十玄門)의 '해인삼라상주처(海印森羅常住處)' 라는 구절에 이르러, 홀연히 마음이 열리면서 법계가 원융무진한 도리를 깨달았다.

덕청의 활동

덕청이 20세에 천계사에서 안거할 때 운곡 선사로부터 '염불시수(念佛是誰)' 공안을 받았다. 덕청은 이때부터 염불 공안에 집중했다. 석 달이 지나자, 덕청은 마치 꿈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대중 가운데 있어도 대중이 보이지 않았고, 일상의 행위를 하고 있을 때에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무렵, 본사가 화재로 소실되었다. 덕청은 본사를 중수하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이런 원력으로 중국 전역을 유행했고, 이러면서 덕청은 학문과 수행이 깊어지게 된다. 1573년 28세에 오대산에 들어가 북대(北臺)에 위치한 감산(憨山)의 풍치가 마음에 들어 이 산 이름을 호로 삼았다. 같은 해 반산(盤山)의 한 석실에서 홀로 수행하는 은자를 만나 함께 수행하다가 삼매를 체험했다. 산하대지와 몸과 마음, 온 세계가 텅 빈 체험을 했지만, 은자의 가르침대로 그런 경계에도 집착하지 않고 더욱 향상일로를 걸었다.

'관음경' 독송 듣고 환희심 일어
어머니의 권유로 12세에 출가해
'念佛是誰' 화두, 염불 공안 집중
유교, 도교에도 학문 조예 깊어
열반 20년 지나도 법구 '변화無'
진신상, 남화 선사 육조전 봉안



중국 광동성 남화선사 육조전에 봉안된 감산덕청 진신상. 덕청의 법구는 20년 지나도 살아있는 듯 했다고 전해진다.

30세에 덕청은 북경에 머물다 묘봉 선사와 함께 오대산으로 들어가 수행했다. 삼매에 든 내용은 아래 서술한다. 1년간에 걸쳐 수행이 깊어질 때, 운서주굉이 찾아왔다. 덕청이 주굉보다 11세나 연하지만, 두 선지식은 며칠 동안 밤을 새우며 법거량을 나누었다.

33세에 덕청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며 피를 내어 〈화엄경〉 한 부를 사경했으며, 38세에 동해 뇌산으로 옮겨 가서 움막을 짓고 안거하면서 염불수행에 집중했다. 그 지역은 역대로 도교가 융성했던 곳으로 불교에 문외한이었다. 이런 사람들에게 불법을 홍포하며 염불로 교화하였다.

덕청의 만년 활동 및 저서

1595년 50세에 조정의 정쟁에 연루되어 누명을 쓰고 광동의 뇌주(雷州)로 유배당했다. 그곳에서 불법을 널리 전하며 선과 화엄의 융합 및 유불도 삼교의 합일을 주장하였다.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서 옛 오나라 땅에 머문 5년 동안 강남과 강북의 불교가 흥성하였다.

56세에는 100여 년 동안 폐사가 되어 있던 육조 혜능의 사찰 남화사(南華寺)를 복원하기 시작했다. 선사는 도량을 정비해 스님들이 살도록 하였고, 인근 출가자에게 계를 주며, 청규를 새로 제정했다. 1606년 61세에 덕청은 황손 탄생을 빌미로 유배에서 사면되었다. 몇 년 후인 1614년 태후가 죽자 비로소 승복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덕청은 60대에 강연을 하고, 많은 저서를 남겼으며, 대중교화에 앞장섰다. 74세 무렵에는 오유봉에서 목석암을 짓고 〈화엄경〉 〈법화경〉 〈능엄경〉 〈금강경〉 〈기신론〉 〈유식〉 등 경론을 강의했다. 이해 8월 보름에는 폐관(閉關)하고 사중 일을 내려놓았다. 76세에도 덕청은 제자들에게 〈능가경〉 〈조론〉 〈기신론〉 등을 강의하였다. 1622년 77세에 덕청은 조계 남화사로 돌아왔다. 이듬해인 1623년 10월 병에 걸리자, 대중을 운집한 뒤 "생사 문제가 크고, 죽음이 금방 닥쳐옵니다"는 말씀을 남기고 앉아 입적했다.

탑 안에 덕청의 감(龕)을 모셨다가 땅에 감을 묻었다. 다시 탑 안에 모셨다가 남화사로 옮겼다. 덕청이 열반한지 20년이 흘러서다. 제자들이 감을 열자, 살아있는 듯 손톱과 발톱, 모발이 길게 자라 있었고, 살색은 선홍색일 정도로 육신이 그대로였다. 제자들은 스님의 진신에는 전단향액을 발랐다. 덕청의 진신상은 현재 광동성 소관 남화선사 육조전에 모셔져 있다.

덕청의 삼매 경지

덕청의 자서전을 살펴보면, 수차례의 삼매 경지가 나타나 있다. 〈감산자전〉을 중심으로 보기로 한다.

30세에 덕청은 묘봉선사와 함께 오대산으로 들어갔다. 오대산에서 가장 험준하다는 용문사 부근에서 토굴을 짓고 1년 넘게 정진했다. 온산이 눈과 얼음으로 뒤덮이고, 주위가 고요해 수행하기에 좋았다. 그런데 얼음이 녹자, 계곡에 물소리가 천둥 우레처럼 요란했다. 묘봉 선사가 덕청에게 말했다. "경계는 마음에서 생기며,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境自心生 非從外來). 고인이 말하기를 30년간 물소리를 듣고도 의근이 동요되지 않는다면 관음보살의 원통경지(觀音圓通)을 증득한다."

덕청이 묘봉의 말을 듣고 나무다리 위에 혼자 앉아 수행한지 얼마 후 자신을 잃어버렸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비로소 흐름이 끊어지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 마음이 전혀 동요되지 않았다.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소리에 방해받지 않았다. 관음보살의 이근원통을 증득한 것이다.

덕청은 경행에 나섰다가 홀연히 삼매에 들었는데, 이렇게 말했다. "몸과 마음이 사라지고 오직 큰 빛의 세계가 펼쳐졌는데, 원만 담적한 것이 둥근 거울과 같았다. 산하대지가 그 속에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나의 자각은 명료하고, 내 몸은 찾을 수가 없었다."

이후부터 덕청은 안팎이 담연하여 소리나 형상에 장애받지 않았다. 이때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덕청이 삼매에서 일어나 토굴로 돌아오니 솥에 먼지가 뿌옇게 쌓여있었다.

덕청은 31세에 제자인 평양 태수 호공(胡公)의 집에 잠시 머문 일이 있었다. 방에 들어 삼매에 들었는데, 5일이 지나도록 좌선한 채였다. 하인들이 방에 들어가 불러도 대답이 없고, 몸을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았다. 호공은 그제서야 요령(삼매를 깨울 때 쓰는 것)을 가져와 귓가에서 수차례 흔들어 깨웠다.

덕청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다. 한참 지나서야 자신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알았다. 덕청은 이 경계를 궁극적인 경지는 아니라고 말했지만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달랐다. 덕청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꿈속의 일과 같았다. 이때의 경계는 광활한 창공처럼 깨끗했다. 마음이 텅 비고, 경계는 고요했으며, 즐거움이 가득했다. 이때 덕청은 이렇게 말했다. "고요함이 지극하면, 빛이 일체에 두루하고, 적연한 비춤이 허공을 머금는다. 알고 보면, 관음보살도 꿈속의 일이로다.(靜極光通達 寂照含虛空 卻來觀世間 猶如夢中事)"

덕청에 대한 역사적 평가

덕청의 철학적 소양은 불교사상을 뛰어넘어 있다. 유학과 도교에도 조예가 깊었다. 유교의 〈대학〉이외에도 〈중용직지〉 〈노자해〉 〈장자내편주〉 등 수많은 주석서를 저술했다. 이 저서에는 모두 유 · 불 · 도 삼교의 조화가 담겨 있다. 또한 기문둔갑이나 풍수지리 · 음양팔괘 · 사주 등 덕청은 학문이 통하지 않은 데가 없을 정도이다. 현대 중국철학자 남회근(1918~2012)은 덕청을 "일개 승려의 몸으로 당대를 뒤흔들었던 사람"이라고 극찬하였다.

불교학으로는 선 · 화엄 · 정토 등 다양한 경전에 섭렵해 있어 〈감산어록〉 〈관능가경기〉 〈법화경통의〉 〈법화경격절〉 〈원각경직해〉 〈기신론직해〉 〈감산노인몽유집〉 등을 저술했다. 곧 선교의 융합을 강조하였다.

이와함께 덕청은 정토행자였다. 〈아미타경〉을 독송하며, 경전을 필사했고, 늘 아미타불을 염했다. 스님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밤이나 낮이나 끊임없이 염불에 몰두하였다. 오래지 않아 해지는 방향의 하늘에 높이 앉아있는 아미타불이 꿈속에 나타났다. 자비로 빛나며 맑고 생생한 눈과 친절한 얼굴을 보고서 나는 사랑과 슬픔 그리고 행복의 혼합된 감정을 느끼면서 그의 발아래 몸을 던졌다."

덕청은 다방면에 뛰어났던 승려로서 운서주굉과 대등한 명나라 최고의 승려로 추앙받는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특산품 준한 차세 마련 백성들 고통

〈茶稅〉



박동춘의

고려茶 문화, 그 아름다움

㉒ 고려시대 차세

고려시대의 차세(茶稅)는 일종의 토공(土貢)으로 부과되었던 듯하다. 토공은 특산물이 나는 지역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러므로 지역마다 토공의 종류가 다르다. 차를 토공(土貢)하던 지역은 대개 차의 산지이다. 대략 전라도와 경상도 일원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세종실록지리지'의 토공조(土貢條)에서 확인할 수 있어 고려 시대까지 유추해 볼 수 있다.

고려 후기 과중한 차세의 부과로 백성이 겪는 고통은 컸던 듯하다. 이를 지적한 인물은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이다. 무신 정권기를 살았던 그는 '손한장이 다시 화답하기에 차운하여 보내다(孫翰長復和次韻寄之)'에서 과도한 차세로 인한 백성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는데, 이는 한림원의 원장으로 부임하는 손득지(孫得之)에게 당부한 말이기도 하다. 손득지가 진양의 부기(簿記)를 맡았을 때 그 곳을 찾아갔던 이규보였다. 진양은 진주의 옛 이름. 진주는 차의 명산지였기에 그를 찾아온 이규보를 위해 화계를 유람했다. 차를 좋아하는 벗을 위한 큰 배려였던 셈이다. 이랬던 벗, 손득지가 사명(司命 임금의 말이나 명령을 관장하는 관청)을 관장하는 높은 관직에 올랐는데, 거듭하여 창수(唱酬)하는 시를 보냈다. 이에 화답한 시가 바로 '손한장이 다시 화답하기에 차운하여 보내다(孫翰長復和次韻寄之)'이다. 이 시에서 이규보는 두 사람 간의 교유를 이렇게 밝혔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문장가가
(古今作者雲紛紛)
초목을 품제(品題)하여 호탕한 기개 발휘했네
(調戲草木騁豪氣)
장구(章句)를 마탁하여 스스로 기이함을 자랑했는데(磨章琢句自謂奇)
사람들의 읊조림은 각각 다르구나.
(到人牙頰甘苦異)
장원의 시 홀로 뛰어났으니(壯元詩獨窮芳腴)
아름다운 문장 뉘라서 찬탄하지 않으리
(美如熊掌誰不嗜)
임금님이 구중궁궐(九重宮闕)에 불러들여
(玉皇召入蓬萊宮)
은대의 요직(要職)에 등용하였네.
(揮毫吮墨銀臺裏)
그대의 재주는 낙락한 천길 소나무이니
(君材落落千丈松)
불초한 이 몸은 칡덩굴 같네
(攀附如吾類縈蘽)

이 시대에 이규보를 능가할 문장가가 뉘일까마는 장원한 손득지의 문장을 "장원의 시 홀로 뛰어났으니(壯元詩獨窮芳腴)/ 아름다운 문장 뉘라서 찬탄하지 않으리(美如熊掌誰不嗜)"라고 극찬했다. 그러니 임금께서 그를 은대 요직인 한림원의 장으로 부르신 것이라 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장구(章句)를 마탁하여 스스로 기이함을 자랑했는데(磨章琢句自謂奇)/ 사람들의 읊조림은 각각 다르(到人牙頰甘苦異)"다는 것이다. 손득지와 자신을 비교하면 손득지는 소나무요 자신은 칡덩굴처럼 하잘은 존재라 하였다. 벗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겸양이 극을 달한다. 이규보가 유차라는 차 이름을 지었던 것 운봉의 규선사와 관련이 있다. 그 이야기는 당대에서 널리 회자하였던 일이었던 듯하다. 이어 이규보는 이렇게 노래했다.



청자 찻잔(靑磁陽刻蓮瓣文茶盞).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우연히 유차의 시를 지었는데
(率然著出孺茶詩)
그대에게 전해짐을 어이 뜻했으리
(豈意流傳到吾子)
시를 보자 화계 놀이 홀연히 추억되구려
(見之忽憶花溪遊)
옛일 생각하니 서럽게 눈물이 나네
(懷舊悽然爲酸鼻)
운봉차를 품평한 구절엔 향취가 없는데
(品此雲峯未嗅香)
남방에서 마시던 맛 완연히 느껴지네
(宛如南國曾嘗味)

그가 "우연히 유차의 시를 지었는데(率然著出孺茶詩)"라고 칭한 것은 바로 "운봉에 사는 규 선사가 조아차를 얻어 자신에게 보여주기에 유차(孺茶)라고 이름을 붙였고, 시를 청하기에 지어 주다(雲峯住老珪禪師 得早芽茶示之 予目爲孺茶 師請詩爲賦之)"라는 시를 말한다. 조아차는 가장 일찍 딴 차 싹으로 만든 최고급차다. 그가 유차라 이름 붙인 것은 젖비린내 나는 여린 차라는 의미일 것이다. 바로 그 시를 손득지가 읽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얘기를 담은 손득지의 화운 시를 보자 화계를 유람했던 시절이 떠올랐다. 이규보의 시는 이렇게 이어진다.

차의 산지는 '토공조'로 부과
차세로 인해 과도한 노동도
이규보, 시 · 편지 통해 우려
관직에 오른 벗 손한장에게
"노약자들까지 제다에 동원"

따라서 화계에서 차 따던 일 논하였으니
(因論花溪採茶時)
관에서 감독하여 노약(老弱)도 징발(徵發)하였네(官督家丁無老稚)
험준한 산중에서 간신히 따 모아
(瘴嶺千重眩手收)
머나먼 서울에 등짐 져 날랐네
(玉京萬里賴肩致)
이는 백성의 애끊는 고혈(膏血)이니
(此是蒼生膏與肉)
수많은 사람의 피땀으로 바야흐로 이르렀네
(鑱割萬人方得至)

윗글에 의하면 이규보가 우려한 것은 바로 노약자까지 징벌하여 차를 따는 일이었다. 험준한 산중을 헤매야 하는 노약자의 수고로움은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등짐으로 수도까지 날라야 했던 고역을 무엇으로 드러내랴.

그런데 손득지는 바로 임금의 언로를 출납하는 관리로 임명되었으니 백성의 고충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아마 임금에게 백성들의 이런 고통을 알려 선정을 충언해야한다는 진의를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알려진 바와 같이 무신 정권기에 차는 사치와 화려함이 극을 이뤘던 시기이다. 승가에서도 임금의 행차를 위해 앞을 다퉈 다정을 설치하고 고급 차를 올렸던 시절이었다. 그러니 차세를 받쳐야 했던 백성의 노고는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었던 때이었다. 이규보가 차는 "백성의 애끊는 고혈(膏血)이니(此是蒼生膏與肉)/ 수많은 사람의 피땀으로 바야흐로 이르렀(鑱割萬人方得至)"라고 한 것은 당시의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원래 차는 사람의 몸과 마음의 불평을 씻어내는 영초(靈草)다. 그러나 이런 차를 얻기 위한 이면에는 수많은 노동과 땀으로 만들어지는 공정을 거쳐야 한다. 고려 시대에 유행했던 단차(團茶)나 백차(白茶)는 수많은 공력이 소모되어 만든 차였다.

이규보도 차를 극히 좋아했던 독서인이었다. 그러나 차세의 어려움을 알았던 그였기에 이런 탄식을 토로한 것이다.

어이 차 달여 부질없이 물 허비할쏜가
(安用煎茶空費水)
일천 가지 망가뜨려 한 모금 차 마련했으니
(破却千枝供一啜)
이 이치 생각한다면 참으로 어이없구려
(細思此理眞害耳)
그대 다른 날 간원에 들어가거든
(知君異日到諫垣)
내 시의 은밀한 뜻 부디 기억하게나
(記我詩中微有旨)
산림과 들판 불살라 차의 공납(貢納)
금지한다면(焚山燎野禁稅茶)
남녘 백성들 편히 쉼이 이로부터 시작되리
(唱作南民息肩始)

앞의 인용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차 한 잔은 실로 "일천 가지 망가뜨려 한 모금 차 마련(破却千枝供一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 한 잔에는 차나무를 기른 천지의 기운과 차를 만드는 사람들의 수많은 공력이 들어간 것이다.

그러므로 이규보의 간절한 바람은 "그대 다른 날 간원에 들어가거든(知君異日到諫垣)/ 내 시의 은밀한 뜻 부디 기억하게나(記我詩中微有旨)"라고 한 것에서 드러난다. 그가 진정 바랐던 건 어진 정치일 터다. 이는 차세에 고통을 덜어 주는 일이다. 차를 좋아했던 그이지만 "산림과 들판 불살라 차의 공납(貢納) 금지한다면(焚山燎野禁稅茶)/ 남녘 백성들 편히 쉼이 이로부터 시작되리(唱作南民息肩始)"라고 노래 한 그의 속내는 무엇이었던 걸까. 실제 손득지는 한림원의 원장이 되어 이규보의 뜻을 헤아렸는지는 상고할 수 없다. 다만 이런 충언을 주고받았던 이들의 우정은 '한장(翰長) 손득지(孫得之)가 화답 시를 보내왔기에, 다시 위의 운에 차하다(孫翰長得之見和°復次前韻)'에서 "평생의 교분(交分) 변치 않기로 기약하였고(始終交契期膠漆)/ 선후의 공명 자연의 운명에 맡겼노라(先後功名任杏梅)"라고 노래했다. 이들의 우정을 깊게 한 것은 뜻을 담은 시이며 차였을 것이다. 더구나 이들의 포부는 "바다 같음을 일찍이 알았지만(早識脩鱗橫海大)/ 이 세상이 술잔보다 좁은 것을 어이하리(其如魯國小於杯)"라고 노래했다. 바다와 술잔 참으로 대비되는 비유이다.

아무튼 고려 말기의 차세의 폐단은 조선이 건국된 후, 차가 쇠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니 이는 차 문화의 성쇠가 사람들의 과욕이 빚은 결과이다. 시대마다 사람들이 차를 탐하는 정도에 따라 그 성쇠가 반비례해 왔다는 점에서 반성의 여지가 크다 하겠다.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머리에 또 머리 얹는 부질없는 짓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㊸ 무위(無爲)와 유위(有爲)

"산승에게는 남에게 줄 법이 하나도 없다. 그저 병을 치료해 주고 속박을 풀어 줄 뿐이니라. 그대들, 제방에서 도를 닦는 이들이여, 시험 삼아 아무것에도 의존하지 말고 나와 보라. 내 그대들과 법을 논하고 싶으니라. 10년이나 5년이나 모두 한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 풀과 대나무 잎사귀에 붙어사는 정령이나 들판의 여우, 도깨비들이어서 온갖 똥 덩어리 위에서 어지럽게 씹어댈 뿐이니라. 눈먼 바보들이여, 저 시방의 시주물만 헛되이 소비하면서 '나는 출가한 사람이다' 하여 그릇된 견해만 지어내고 있느니라. 그대들에게 말해 주었느니라. '부처도 없고 법도 없으며,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다' 고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옆길로만 쏘다니며 무엇을 구하려 하는가? 눈먼 바보들이여, 머리 위에 또 머리를 얹는 것처럼 부질없는 짓이니라. 도대체 그대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임제가 '남에게 줄 법이 하나도 없다' 한 것은 바꾸어 말하면 '얻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다' 는 말이다. 이는 황벽의 〈전심법요〉에 나오는 말이다. 수행이라는 것이 자신이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줄 법이 없고 얻을 법이 없는데 무엇을 깨닫는다는 말인가? 〈전심법요〉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오직 바로 당장에 자기 마음이 본래 부처이며 얻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고 닦을 수 있는 수행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단박에 깨닫는다면 이것이 곧 위없는 최상의 도이며, 바로 진여불(眞如佛)이다."

이것을 모르는 것을 임제는 눈먼 바보라고 한 것이다.

배휴(裴休)가 황벽(黃蘗)에게 물은 말이 있다.

"혜능(惠能) 스님은 경전을 몰랐는데 어떻게 법의(法衣)를 전해 받아 육조가 되었으며, 신수(神秀) 스님은 500명의 대중을 가르치는 교수사(敎授師)의 소임을 맡아 32본(本)의 경론(經論)을 강의할 수 있었는데 왜 법의를 전해 받지 못했습니까?"

이 말에 답하기를 "신수 스님은 마음이 있었기(有心) 때문이니 이는 유위(有爲)의 법으로써 닦고 깨닫는 것을 옳다고 여겼기 때문이니라."

도(道)를 닦을 때는 무위심(無爲心)으로 닦는다고 한다. 무위심은 곧 무상심(無相心)이다. 마음속에 어떤 관념적인 생각이 들어있지 않은 것을 말한다. 육조 스님은 〈금강경해의〉 서(序)에서 〈금강경〉을 두고 "무상(無相)으로 종(宗)을 삼고 무주(無住)로 체(體)를 삼으며 묘유(妙有)로 용(用)을 삼는다." 하였다.

또 육조 이전인 우두 법융(牛頭 法融 · 594~657) 때부터 강조한 무심합도문(無心合道門)이 있었다. 그가 남긴 말에 "적절히 마음을 쓸 때는 적절히 무심을 쓰라(恰恰用心時 恰恰無心用)" 하였다. 그리고는 다시 "무심이라 말하는 것이 유심과 다르지 않다(今說無心處 不與有心殊)" 하였다. 무심합도를 주장하면서도 무심이 유심과 다르지 않다는 것은 무심을 유심과 상대적으로 대치하여 분별심으로 보지 말라는 말이다. 선(禪)에서 그렇게 자주 쓴 무심이라는 말이 교리적으로 보면 탐(貪) · 진(瞋) · 치(痴) 삼독 등 번뇌가 없는 마음이다.

우리나라 고려 때 보조국사 지눌도 수선(修禪)의 방법으로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 무심합도문을 주장하였다. 지눌은 조종(祖宗)의 무심합도가 정혜에 구애되지 않는다(祖宗無心合道者 不爲定慧所拘也)고 하였다. 그는 무심을 설명하기를 무심이란 심체(心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심중에 물(物)이 없는 것이 무심이니 마치 병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것을 빈병이라 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또 유심은 괴로운 것이지만 무심은 스스로 즐거운 것이라 하였다. 임제의 사구송(四句頌)에도 무심을 강조한 법문이 있다.

若人修道道不行　만약 사람이 도를 닦는다 하면 도는 닦아지지 않는다.

萬般邪境競頭生　온갖 삿된 경계만 다투어 생길 뿐이다

智劍出來無一物　지혜의 칼을 꺼내 아무것도 남기기 말고 베어버려야

明頭未顯暗頭明　밝음이 안 나타나도 어둠이 밝아진다.

〈통도사 반야암 회주〉

業因의 근본 동력은 '근본번뇌'



세상 속 경전읽기

㊸ 견혹(見惑)과 수혹(修惑)

생물[有情]이 미망의 세계[迷界]에 생사윤회[流轉]하는 것은 불공업[不共業 · 개인이 지은 선악의 행위]이 원인이고, 바깥 세계의 삼라만상[諸法]이 생성전개(生成展開)하는 것은 공업[共業 · 공동으로 지은 선악의 행위]이 원인이다. 이러한 업인(業因)을 발하게 돕는 근본 동력은 근본번뇌[惑, 隨眠]이다. 6근본번뇌[6수면(隨眠)]는 탐(貪) · 진(瞋) · 치[痴, 무명(無明)] · 만(慢) · 의(疑) · 악견[惡見, 부정견(不正見)]이다. 곧 탐진치 3독심과 아만심, 의심, 나쁜 견해가 여섯 가지 근본번뇌로 〈구사론〉 제19권에 나온다.

"앞(권 제13 초)에서 세간의 차별은 모두 업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업은 수면(隨眠, Skt. anuśaya)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생장할 수 있으며, 수면을 떠난 업은 유(有, 애착에 의해 윤회 전생의 동력을 가지는 존재, 욕계 · 색계 · 무색계의 3유)를 초래할 만한 공능을 갖지 않는다. 그 까닭은 무엇이며, 수면에는 몇 가지가 있는 것인가? 게송으로 말하겠다. 수면은 모든 '유(有)' 의 근본으로, 이것의 차별에는 여섯 가지가 있으니 이를테면 탐(貪) · 진(瞋)과, 또 만(慢) · 무명(無明) · 견(見) 및 의(疑)이다.[前言世別皆由業生° 業由隨眠方得生長°離隨眠業無感有能 所以者何°隨眠有幾°頌曰°隨眠諸有本 此差別有六 謂貪瞋亦慢 無明見及疑]"

〈阿毘達磨俱舍論 T1558_.29.0098b18-b22〉

이 6수면은 대승의 유식학파에서는 5위 100법의 심소유법(心所有法) 중 근본번뇌심소(根本煩惱心所)에 속한다. 유식학파의 〈성유식론成唯識論〉은 세친(世親)의 〈유식삼십송〉을 주석한 것으로, 세친 문하의 10대논사(大論師)의 주석을 호법(護法)의 설을 중심으로 하여 비판종합하여, 당나라 현장이 659년에 옥화사(玉華寺)에서 번역한 것이다. 이 〈성유식론〉 재6권에 기술된 내용을 살펴보자.

"번뇌심소의 양상은 어떠한가? 게송(〈유식삼십송〉의 제12)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번뇌심소는 탐(貪) · 진(瞋) · 치(癡) · 만(慢) · 의(疑) · 악견(惡見)이다. 논하여 말한다. 이 탐(貪) 등 여섯 가지는 체성이 근본번뇌에 포함되기 때문에 번뇌심소라고 이름한다. [煩惱心所其相云何。頌曰。煩惱謂貪瞋 癡慢疑惡見 論曰。此貪等六性是根本煩惱攝故。得煩惱名。]"

〈成唯識論 T1585_.31.0031b15-b19〉

〈구사론〉 제 19권에 10수면[隨眠, 根本惑, 根本煩惱]에 대한 내용도 나온다.

"6수면은 견(見)의 차별에 의해 10수면이 되니 (여기서) 차별이란 이를테면 유신견(有身見) · 변집견(邊執見) · 사견(邪見) · 견취(見取) · 계금취(戒禁取)가 바로 그것이다. [六由見異十 異謂有身見邊執見邪見 見取戒禁取]"

〈阿毘達磨俱舍論 T1558_.29.0099a29-b01〉

10수면은 6수면의 악견(惡見)을 다시 유신견[有身見; 나와 내 것이 있다는 견해] · 변견[邊見 · 斷見과 常見] · 사견[邪見 · 인과를 부정함] · 견취견[見取見 · 그릇된 견해를 바른 것으로 간주하여 거기에 집착하는 견해] · 계금취견[戒禁取見 · 그릇된 계율이나 금지 조항을 바른 것으로 간주하여 거기에 집착하는 견해]의 5종으로 세분하여, 탐진치만의(貪瞋痴慢疑)와 합한 것으로 10사(使)라고도 한다. 이중 5견(見)은 견도위(見道位)에서 돈단[頓斷 · 돌을 깨듯이 단번에 끊음]하므로 견혹(見惑) 또는 5리사[利使 · 예리하게 끊어지는 번뇌]라고도 하고, 탐진치만의(貪瞋痴慢疑)는 수도위(修道位)에서 점단[漸斷 · 연밥의 실이 늘어나면서 잘 안 끊어지는 것을 끊듯이 점차로 끊음]하므로 수혹(修惑) 또는 5둔사[鈍使 · 둔하게 끊어지는 번뇌]라고도 한다.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㊽ 깨침의 길 4

깨침에 이르는 4단계(四果)

20살 시절 큰형님이 결혼을 하면서 처음으로 양복을 입게 되었다. 그 당시는 양복점에서 치수를 재고 옷을 맞춰 입었기 때문에 비교적 몸에 잘 맞는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잘 안 입던 옷이어서 그런지 조금은 불편했다. 양복을 입은 설렘에 한껏 폼을 잡아보았지만, 폼이 잘 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때 느꼈다. 폼 잡기도 쉽지 않지만 폼 나기는 더 어렵다는 사실을 말이다. 옷 입는 것도 그러한데, 우리네 삶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깨침의 세계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생의 삶, 고통의 삶을 청산하고 깨침의 길로 들어섰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폼이 잘 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생으로 살았던 습기(習氣)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불교의 여러 종파에서 깨달음의 세계에 단계와 과정을 설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이는 곧 폼 잡는 단계에서 폼 나는 단계로 한층 성숙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부파불교에서는 깨침에 이르는 과정을 4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소승사과(小乘四果), 혹은 성문사과(聲聞四果)라고 한다. 성문이란 글자 그대로 붓다의 음성을 직접 듣고 수행하는 제자를 가리켰다. 그런데 '위로는 진리를 구하고(上求菩提)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는(下化衆生)' 보살이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부각하면서 성문은 홀로 연기의 진리를 깨치는 연각(緣覺)과 함께 소승으로 분류되었다. 성문과 연각, 보살을 흔히 삼승(三乘)이라 부른다.

성문사과에서 맨 처음으로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간 경지를 수다원과(須陀洹果)라고 한다. 이를 한자로 입류과(入流果), 혹은 예류과(預流果)라고 하는데, 깨침이라는 흐름(流)에 들어갔다(入)는 뜻이다. 이 경지에 들기 위해서는 사성제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색 · 성 · 향 · 미 · 촉 · 법의 경계에 끌려가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수다원과에 들게 되면 욕계(欲界)와 색계(色界)를 7번 반복한다고 한다. 비유하자면 처음으로 양복을 입고 폼을 잡는 단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사다함과(斯陀含果)다. 일래과(一來果)라고도 부르는데, 천상계와 인간계를 한번 왕래한다는 뜻이다. 열심히 수행하여 깨달음의 세계에 들었으나, 아직 모든 번뇌를 완전히 끊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 윤회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수다원과에 비하면 수행이 많이 익은 단계다. 비유하자면, 양복을 자주 입어서 몸에도 익숙하여 폼이 조금 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아나함과(阿那含果)다. 이 경지는 불래과(不來果), 혹은 불환과(不還果)라고도 하는데, 윤회하는 세계에 다시 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수행이 많이 익어서 더 이상 욕심의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 경지다. 양복을 입었어도 입은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 폼이 아주 잘 나는 상태에 비유하면 어떨까 싶다.

마지막 단계는 아라한과(Arahan, 阿羅漢果)다. 이 단계는 모든 번뇌를 완전히 끊은 경지다. 번뇌라는 도적을 죽였다고 해서 살적(殺賊)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사람은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하다는 의미에서 응공(應供)이라고도 한다. 깨달음을 이룬 성인 가운데 최고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사찰에 있는 나한전(羅漢殿)은 바로 아라한을 모신 전각이다.

이처럼 성문사과는 번뇌를 끊은 정도에 따라 깨침의 질적 차이를 두고 있다. 경전에도 '누구는 수다원과에 들었다, 누구는 아라한과에 들었다' 는 이야기가 종종 나온다. 물론 이것은 수행의 차이에서 결정되지만, 근본적으로 얼마나 폼이 잘 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폼은 구체적인 삶에서 드러난다. 결국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가 기준이 된다는 뜻이다.

한국불교에서 깨달음에 관한 돈오점수(頓悟漸修)와 돈오돈수(頓悟頓修) 논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돈점논쟁의 핵심은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서 찾아야 한다. 얼마나 깨치고 닦았는지는 순간순간 부딪치는 경계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앞서 반복한 것처럼 폼 잡기도 쉽지 않지만 폼 나기는 훨씬 더 어려운 법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두려움 지배받지 않는 주인공 되라



최훈동의
마음 사용 설명서

㉒ 두려움과 평정심



22-1 삶의 고통 가운데 두려움만한 게 또 있을까요?

예비역 장성 K씨는 어느 날 갑자기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장성한 두 딸이 아직 유학중인데 아파트 값이 떨어지자 잠이 오지 않고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되었지요. 잠을 청할수록 잠은 달아나고 모든 게 근심이요, 걱정이었습니다. 고된 운동으로 잠을 자려 해도 되지 않아 침과 한약으로 치료도 받아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점점 의욕도 없어지고 좋아하던 운동도 시들하고 밥맛도 잃어 그렇게 자신하던 체력마저 잃지 않나 두려움이 왈칵 들었습니다. 불치병에 걸리지 않았나 걱정이 되자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없는 초조함 속에서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용기를 짜내어 지인의 소개로 진료실을 찾게 되었노라 하였습니다.

그의 병명은 초조성 우울증(예전에는 갱년기 우울증)입니다. 은행 지점장 B씨도 갑자기 암에 걸리지 않았나 걱정에 휩싸여 불안 초조와 함께 건강염려증에 시달리다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 자살 시도를 하여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의 경우도 초조성 우울증입니다.

22-2 몸의 난치병도 그러하지만 마음이 병들면 사회적 지위나 재산, 학력이나 능력 등이 모두 소용없습니다. 실존적 고통으로 죽음에 이르게 만드니까요. 두 사람 다 사회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위치까지 올랐건만(물론 당사자들은 불만이었지만) 이제 더이상 오를 수 없는, 앞으로는 내리막길이라는 절박감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정과 불확실함에 평정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미미해 보이고 앞으로 가족의 미래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절망감 등이 연이어 피어오르면서 자신의 건강마저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눈사태처럼 증폭되어 불안 공포의 폭탄을 맞은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자신이 갖고 있는 많은 장점과 능력들이 조금도 보이지 않고 가장 최악의 상황만 부각시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태에서 자살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요. 유명한 정치인, 법조인, 의사, 연예인, 재벌 총수에 이르기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이는 모두 마음의 병을 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전문적 도움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생각하는 범위가 한계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부정적이고 한정된 생각 속에 매몰되고 만 것입니다. 보다 넓은 세상이 있다고 믿지 않는 우물 안 개구리마냥 폐쇄된 생각의 회로에 묶이고 맙니다. 부정적 심리는 몸과 영혼마저 갉아먹어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군요. 전문적 치료(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받아 평온한 삶을 살고 있지만 치료를 받기 전에는 두 사람 모두 죽음의 사자가 바로 눈앞까지 왔었노라 하였습니다.

22-3 우리 모두에겐 잊혀진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부모들 또한 상처 속에서 살아온 까닭에 자녀들과 온전히 연결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통제하고 지나치게 보호하거나 권위적으로 엄격하게 군림하기도 하고 적대적으로 학대하거나 아예 방치와 무관심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미숙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학대'와 '버림'이라는 두 가지 핵심 상처를 입히지요.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수용하지 못하고 계속 지적하거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꾸지람을 거듭합니다. 부모가 바빠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무관심으로 아이 혼자 내버려두거나 아예 집을 나가는 경우까지 버림은 다양합니다.

이렇게 학대나 버림받은 아이들은 두려움을 감당하기 위해 스스로 이야기들을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어린 아이가 우리 가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내면을 깊숙이 돌아본다면, 부모가 떠나 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힘센 아이에게 당하는 행패, 더 많은 걸 얻은 형제에 대한 질투, 더 좋아하는 장난감을 동생에게 양보해야 하는 슬픔 등이 있습니다. 처음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던 때를 돌아보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지요.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 상처받고 버려진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힘센 아이에게 놀림 당하고 이용 당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때마다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겨났지요. 또한 혼자 내팽개친 두려움도 있었지요.

> **두려움 직관한 자유 느끼고**
> **내면 실상이 평온함 이끌어**
> **연민의 마음이 자비로 퍼져**
> **가짜 나 아닌 '참 나' 사는 길**

외로움을 두려워하여 어울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무리에 속하여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행동들을 하기도 했으며, 센 척하고 싶어서 무리에 속해봤지만 스스로를 '변변치 못하다.' 고 생각하는 열등감과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였지요.

22-4 이러한 상처와 암울한 경험들이 마음속 갈등의 진원지이고 수많은 소설들을 만들어냅니다. 에고는 삶의 모든 것에 대해 끊임없이 잔소리를 합니다. '똑바로 하라' 고 다그치고 '왜 이리 못났느냐' 고 불평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나에게 했던 잔소리와 똑같지 않나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얼마나 삶을 두려워하는지 자각하지도 못합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고 애써야 한다는 신념이 자리 잡게 되었지요.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보았지만 실패합니다. 늘상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고, 그래서 늘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을 쓰고 남들의 평가에 예민하게 되지요. 자신을 가치 없다고 느끼며, 남들에게 용납되지 않는 부분을 감추느라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훔치기도 합니다. 사소한 것들에도 내가 잘못하였다며 자책하고 '사랑을 또 잃는구나' 라고 절망합니다.

숙고 명상으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한 후 어린 시절을 돌아봅니다. 떠오르는 기억들이 무엇이든 허용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세우고 아무리 두렵고 아픈 기억이라도 기꺼이 마주 하리라 결심합니다. 이제 떠오르는 장면과 사건에 집중합니다. 그 때 겪은 아픔, 두려움, 분노, 좌절, 당혹, 외로움 등을 경험해보세요.

그 두려움이 그 아픔이 나를 어떻게 반응하게 만들었는지 바라봅니다.

22-5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 두려움을 겁내게 되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기분 좋아지는 것들을 찾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나 기분 좋은 상태는 지속되지 않았고 더 강력한 즐거움을 주는 것들에 탐닉하게 되었지요. 두려움의 세계에서 벗어나려 애쓰면 애쓸수록 두려움의 수렁에 빠져 마음의 평정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에고의 수치심, 분노, 절망은 각기 서로를 먹여 살립니다. 에고는 자신이 희생자라고 느끼며 절망감을 키우고 이러한 피해 의식 속에서 자신의 고통에 대해 "그 사람이 그렇게만 안 했다면..."하며 상대방을 탓하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비난하며 분노와 수치심을 키웁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수치심- 분노- 절망의 악순환에 사로잡힌 경험이 있습니다. 내면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넋두리하면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에고는 두려움이 낳은 분노 수치심 열등감을 나와 동일시하게 만들었지요.

22-6 에고는 자신의 두려움, 분노, 거기서 비롯된 절망이 너무도 겁이 나서 그것들이 보이지 않도록 정교한 보호 시스템을 만듭니다. 에고의 방어는 불편한 경험을 피하려고 음식, 약물, 술, 섹스, 일, 인터넷, 텔레비전, 쇼핑, 핸드폰 등등, 우리를 돌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밖에서 구원을 찾아 헤매게 합니다. 심지어는 종교마저 이러한 마음 불편과 고통으로부터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붓다는 이런 모든 생각과 감정들뿐 아니라 마음의 불편이나 마음의 번뇌들을 피하지 말고 직시하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내것이 아니고, 에고 또한 내가 아니라고 일깨워줍니다. 에고가 지어낸 이야기들을 경청하되 내 것이 아님을 자각하라고 하십니다. 쓰레기는 지니고 다니면 악취가 나므로 버려야 하듯이 마음의 찌꺼기들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23-7 이 알아차림과 내려놓음은 명상의 요체입니다. 두려움은 정신적으로 위축시키고 소심하게 만들고 자기 방어에 급급하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판단 받고 야단 맞을 때 자신을 잘 관찰해보면, 위가 뒤틀리거나 몸이 긴장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두려움은 여러 신경성 질환들- 긴장성 두통, 신경성 위염 공황장애, 요통 등을 일으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자기만의 소설을 써서 사실을 변형 왜곡시킵니다. 명상은 이 두려움의 증폭 과정을 관조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두려움을 피하지 않으면서 바라봄- 참여적 관찰을 통해 내것이 아님을 자각하고 자유를 느낍니다. 그동안 두려움이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 애쓰느라 두려움에 저항하고 두려움을 보지 못하였지만 이제 내면의 실상을 여실히 바라보고 받아들이면서 평온한 마음이 됩니다. 두려움의 본질과 구조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경험하자 오히려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두려움을 깊이 바라보고 그것이 어린 시절에 주입되고 또 스스로 만들어낸 신념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깨달으면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22-8 이렇게 두려움을 향해 마주서고 바라보면 두려움이 만든 여러 소설들을 감상할 수 있게 되고 그 이야기들의 주인공에게 가여움(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내가 만든 이야기로 피해받은 주변 사람들에게 연민이 퍼져 나갑니다. 그들도 얼마나 두렵고 아팠을지 공감하게 되고 연민이 샘솟습니다. 자타에 대한 연민은 조건이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비로소 자신을 사랑하고 남을 보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본래 고향(불성)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이제 두려움이 일어나도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마음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고가 고치려 하거나 평가하고 비난하려는 애씀을 오히려 안쓰럽게 여기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관심을 주면 진정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어떻게 화를 내고 어떻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지 명확히 보게 되면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는 주인공이 됩니다. 에고(가짜 나)가 아닌 참 나로 사는 거지요.

〈한별정신건강병원장〉

그림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卍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자못자'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80,000원	
	사찰용 65×145cm 가정용 45×110cm	
색상	그린·레드	그린

특별증정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마하몰 ☎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317호 | 15 | 전면광고

몸은 청정하여 악을 행하지 않고 입으로 하는 말은 언제나 청정하고, 마음을 부처님 마음처럼 청정하게 하는 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법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중음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불 교 용 품
고 가 매 입 전 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합
010-5412-8040 법광

입종 동참안내
불교문화정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원, 불교선문화원,
불교명상문화원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교육부 산하 상학 인가)
만대 불교학 대학원
010-5412-8040 법광

운명학 단기완성
데이터 기반 명리학과 특별한 비법 단기 강의, 스님께 확신이 됩니다
3개월 단기완성
수업료 : 5백만원
교육시간 : 주2회 (2시간씩)
문의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창원시 성산구)

★검 색★
GPN
손도사
최고 운명정보, 무료검색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배우자 구함
●남61세 경북
●직업 : 철학교육 · 교수
●전원주택에 거주할 분
●여성은 '거짓이 없는' 여성분
●문자주세요
010-4014-8822

비 돈!!들어오는 법
◉◉ 치우천왕 ◉◉
빨간속옷
남녀 : 6만원 → 3만원
농협 352-0796-0696-03 배정민
010-4500-8234

• • •
행자승 구합니다.
비구50세 이하
포항 원진사
• • •
010-3517-6099

• • •
공양주 모십니다.
도심속 사찰
관음사
• • •
010-5736-1835

• •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 • •
010-8721-2198

**** 희망소식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우울증, 공황장애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 되는 병
기공, 퇴마, 천도 미륵사 주지 청원
010-3111-9056

기도의 신
원하는 대로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부설)
우학스님의 유튜브강의
(생활법문, 경전·조사어록강의)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무일선원(사부대중, 행자모집중)
문의 : 054-753-8228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탱화 배울분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뽑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명리·육효강좌
(연결카페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반 ○ 초보에서 실천완성
명리·육효학 ○ 초보반 : 명리·육효 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실전반 : 명리·육효 기초 완성자
백암역리원 02)597-1101
오시는 곳 :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종로오피스텔 4층 401호)
● 매주 목요일 정오12시~6시 [월 4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10-3747-869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 문의 | 02-732-1520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2009년 보이차 숙차(노동지 병차) "9978"[357g] 식약청 정식 통관제품



전통적인 맹해 차창의 7572 배방방식으로 오랜동안 보관하셔도 좋고, 바로 드셔도 그 맛과 기운이 아주 좋습니다!
한정수량 특별판매가
▶ 노동지 병차 [숙차(357g)] 1개 ····· 55,000원
▶ 노동지 7자 병차 [숙차(357g) x 7개] ····· 308,000원
■ 식품유형 : 단일침출차 (보이숙차) ■ 중량 : 357g ■ 원산지 : 중국 운남성 ■ 생산일자 : 2009년 1월 6일 ■ 제조원 : 안녕해만차업 유한책임공사
문의:02-732-1520 마하몰 (www.mahamall.co.kr) 계좌번호: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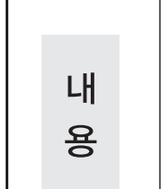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17호 | 16 | 전면광고

마음의 변덕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 마라.
항상 마음을 잘 다스려서 부드럽고 순하고
고요함을 지니도록 하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장아함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
◎ 대지 : 300평
◎ 건평 : 100평,외
◎ 시내중심,공원옆,주차가
◎ 매가 : 40억

◎ 위치 : 경기도
◎ 대지 : 200평
◎ 건평 : 90평
◎ 공원옆, 주차가
◎ 매가 : 9억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토 굴 안 내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대지 660평. 남향. 요사채 포함 ●11동. 무건물. 법당 25평. 2017년 건축 ●현재사용 : 천평(약수물. 각종 유실수 다량) ●사륜구동차량 진입가능(주차장) ●가액 : 3억 5천

010-9203-1165

사 찰 안 내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대지 230평(임대)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요사채 2동. 범종각
●영산강 전망이 좋음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대지 194평. 건평 43평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포 교 원 안 내

●위치 : 대구시 동구 지하철 역세권 대도로접3층
●약 50평, 도시가스, 옥상사용, 주변주차시설양호
●보증금 500만, 월 45만
●시설비 1300

010-7337-5956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납골당 5000개 가능
●가액 : 11억 5천만원(가격절충)

010-5421-1536

전원주택&토굴 안내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위치: 경북 영천 청통 부근
●산을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단청, 주련 현판
●총평수465평, 현대식건물2동
●1층 요사 30평, 14평
●2층 30평 법당
●주차장 확보
●가액 : 3억 7천만원

010-5804-5100

사찰 안내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대지 : 350평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가액 : 답사후 결정

010-7584-8338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건물 : 법당, 산신각, 평수 : 600평
●가액 : 5억 5천(절충가능)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도시가스, 상수도임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010-3128-2399

사찰 안내

●위치 : 부산 연제구
●대지 : 123평, 건평 : 60평
●법당외, 삼성각, 용왕, 호신불당, 마당6층 옥탑, 차고, 자연수(사철)
●상수도, 뒤는산, 전면 좌우 주택지
●가액 : 3억 5천

010-2720-1580

지리산 청정 사찰 안내

●위치 : 지리산 산청군 중산리 청정지역
●1200평 마당전체에 미륵부처님 약사여래부처님있음, 건물3동, 마당에 폭포, 방안에 편백나무 부착 되어있음, 주차장넓음
●가액 : 7억(3억대출있음)

010-7104-1679

◈◈◈
천하 명당자리
환경 최고 전망
버스 마당까지 진입
산청군 단성면
◈◈◈

010-4492-3479

사 찰(급) 안 내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큰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1층 요사. 2층 법당.삼성각 약 20km. 원주시청.충주시청.문막읍
●가액 : 6억 5천
●답사 하실분만 전화요망

011-371-5567

사 찰 안 내

●위치: 김천시 구성소재, 황금동 10분대 (교통편)
●법당 약20평, 주방·거실1, 방2, 세면장, 화장실, 벽돌조 32평 독채, 등기필(사찰등록필)
●대지(도지료 1년 35만원)약100평
●남향, 교통좋은 포교지(2차선 남김천대로변)
●가액 : 4천 5백만원

010-7295-1259

포 교 원 안 내

●위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2층 40평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시설금 2천만원
●시설완비

010-8567-3667

토 굴 안 내

●위치 : 파주시 문산읍
●대지 : 104평
●건물 : 30평(법당, 요사채, 9층탑)
●전세금 : 3천만원
●시설금 : 4천만원

010-8567-3667

도심 최고의 포교사찰

●위치 : 서울도심
●대지 : 2필지 200평 ●건물 : 법당 50평
●제일요사체 100평, 제이요사체 50평
●사찰운영 양호
●대출 10억 가능

010-9759-7152

포 교 원 안 내

●위치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5분거리
●관악산, 까치산 청정도량
●재래시장 인근, 이동인구 많음 4층건물 중 2층 30평
●보증금 2천만원, 월 120만원
●시설 권리금 없음

010-3657-9590

전원주택·사찰·요양원

●위치 : 경남 거창군 남상면 수암로 1669
●지방도로변 계획관리지역
●대지 329평,전 421평, 임 385평
●주택 34평, 황토방 1, 창고 50평
●자연암반수 우물있음
●가액 : 3억5천만원

010-3848-2452

사 찰 안 내

●위치 :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지
●총평수 : 756평(4필지, 종교부지포함), 법당 25평, 요사채 25평(조립판넬식)
●가액 : 1억3천(상수도, 지하수)
●마을에서 300m떨어져있음 (뒤에는 야산)

010-9504-7259

사 찰 안 내

●위치 : 제천시 중심가
●대지 약 80평
●법당 15평
한옥요사채 30평
●수행과 포교 적합한 곳
●가액 : 1억 5천만원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8478-3234

사 찰 안 내

◈◈◈
마당이 아주아주
넓은사찰
투자가치 100%
대출 9억안고 22억
◈◈◈

010-4492-3479

사 찰 안 내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법당: 55평 ●요사: 75평
●대지: 500평 ●임야: 4천평
※지하150m 석수 1일 200톤이상 생산가능
●가액 : 11억(대출 2억5천 포함)

010-4547-0023

사 찰 안 내

●위치: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부지 : 500평(대지250평)
●법당(16평), 종무소(6평), 창고 (4평), 종무소2(18평 콘크리트 건물 신축), 요사체+휴게실+창고(30평), 산신각
●가액 : 4억 5천만원
●북원주IC 5분거리 서울 이동시간 적절

010-8969-5014

포교원(급)안내

◈◈◈
동대문구 왕산로
60평 11년차
◈◈◈

010-3714-1018

포 교 당 안 내

●위치 : 경남 양산시
●2층 65평
●법당, 방3, 공양실
●보증금 500, 월 35
●권리금 2천만원

010-3715-2696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진주 금곡면
●대지 : 405평
●법당 20평, 산신당5평, 요사, 방5개, 건물5개, 화장실2개, 주차공간 많습니다.
●가액 : 2억 8천
●부동산 사절

010-7506-8604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炎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포 교 원 할 분

●서울 강서 화곡동 소재
●2층건물에 2층, 20평, 정남향코너
●보증금 3백, 월 50
●권리금, 부가세 없음
●건물주가 협조함

010-5381-1419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살아숨쉬는 생명의 돌"
희담석 방석[고급형] 수량 한정판매~!!!



정가 ~~198,000~~원 ➡ 할인판매가 120,000원
●색상 : 살구색 ●크기 : 450mm X 450mm
※베개겸용 휴대용케이스 증정
희담 가루방석은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여도 원기와 활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평상시 꾸준한 운동과 더불어 희담 가루방석을 함께 사용하시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판매문의 : 1688-9099 (02-732-1520)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합장주·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0mm) 판매가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행 스님

물러서지 않고 밀고 나가는 그 마음이 바로 공법입니다

어떻게 놓아야 하나요

질문 : 요즘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고 살기도 막막한데 애들은 애들대로 말썽을 부리니 마음이 자꾸 우울해지기만 합니다. 놓으라 놓으라 하시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놓아야 하겠습니까.

답변 : 내가 자주 얘기했죠. 큰 솥에다 팥죽을 쑤는데 말입니다, 팥죽 방울이 너무 많거든요. 수도 없이 그냥 막 끓어오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배 속에서도 수없는 생명의 의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놓는 데도 한 군데, 나오는 데도 한 군데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 방울 조 방울, 요 방울 조 방울이 연방 나오는데 한 군데서 나와서 한 가지로 고정되게만 한다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마는 천차만별로 다른 방울이 그냥 솟아 나와요. 그 죽솥에서 죽방울이 말입니다. 방울은 작고 크고 달라도 죽솥에서 나오는 거니까 죽솥에다가 놔라 이런 건데, 즉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요놈도 문수! 요놈도 문수!" 하고 죽방울이 나오는 대로 주걱으로 쳤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것이 다 용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살림하면서 별게 다 나오는데, 병고로 인해서 걱정, 가난해서 걱정, 회사에 가서 상사들한테 꾸중을 들어서 걱정, 또 애들이 속을 썩여서 걱정, 또 부부지간에 싸워서 걱정, 돈이 없어서 걱정, 뭐, 걱정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죽방울은 죽방울인데 그렇게 다른 죽방울이니 그것들이 다 한 죽솥에서 나온다 하는 것만 믿고 알아라. 그러면 거기에다 놓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솥의 죽방울이니 걱정을 하지 말고, 당장 애가 나가서 죽는다 이러더라도 걱정을 안 하고 '거기에서 나온다' 하는 거를 안다면 그 애는 나가서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것이 벌써 전체 통신이 되기 때문이죠. 가설이라고 그러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 내 형이라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가설이고, 아들이라는 거 마누라라는 거 알지, 어머니라는 거 알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가족은. 그러니까 급하면 급한 대로 절친하면 절친한 대로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가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한생각을 그렇게 하는 동시에 바로 식구들까지도 다 통화가 돼요. 거짓말 아니에요. 통신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벌써 '난 집으로 들어가고 싶구나.' 이러곤 저절로 들어오죠. 자동적이에요, 그건. 이렇게 자동적으로 사람을 다뤄야 그게 이심전심이에요.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애들이 잘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난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다면 어른이 생각할 때 천부당만부당할지라도 "그래, 네가 하고 싶으니까 해 봐라." 그러고선 아주 좋게 그냥 받아 주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만 경험하고 딱 돌아서게끔 마음에다 관해 놓으면,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나가서 다 해 보고는 "아이, 아버지. 나 그거 고만두겠어요."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고만두니?" 외려 그러면은 "아, 이만저만해서 그러니까 저 다른 걸로 하겠어요." 한단 말입니다. 요렇게 해서 사랑과 자비, 의리, 이심전심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관심, 이것이 진짜 사랑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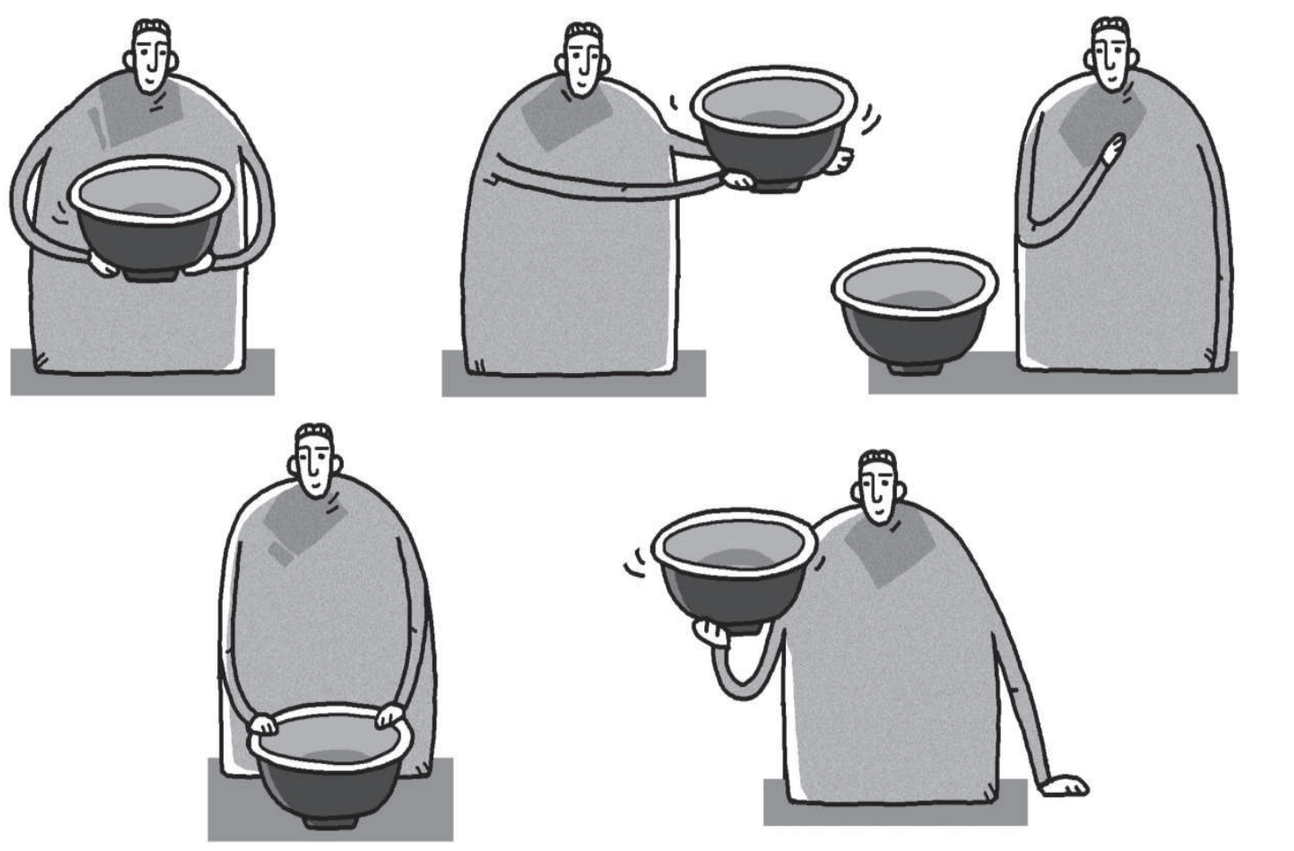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런데 그냥, 나가서 조금만 잘못됐다 하면 그쪽 이유는 듣지도 않고 "야이, 이놈의 새끼야. 너 어디 갔다가 이제 들어왔어, 공부하라니까? 이 애비는 땀 흘리고 벌어다가 너희들 공부시키는데!" 이럽니다. 누가 아니라나요? 하하하…. "그렇게 공부시키는데 요놈 새끼, 어디 가서 자고 들어와?" 그쪽 사정은 알아보지도 않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먼저 내 얘기를 하기 이전에 상대방 얘기부터 듣고, 잘못됐으면 "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하고 주인공에 맡기는 거, 또 그렇지 않으면 "얘, 그렇게 해서 못 들어왔구나. 그건 참 잘했다. 네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참 잘했다. 사나이가 그런 의리도 없이 어떻게 살아나가겠느냐." 아, 이렇게 좀 북돋아 주면 나가서 잘못하래도 안 해요.

이것이 부모가 삼분의 일 가르치는 일이고, 삼분의 일은 자기가 자작하며 이끌고 다니는, 바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잡아서 나가는 거, 삼분의 일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이렇게 3단계가 한데 합쳐지게 되면요, "이랬어, 저랬어" 이러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그러곤 좋아서, 말할 땐 무릎 꿇고 앉아서 정중하게 말하고, 또 재밌게 얘기하고 그럴 때도 "이랬어, 저랬어" 마구 말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존경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스무 살, 스물하나 둘 요 정도가 예전 서른 살하고 맞먹는단 얘기죠. 지금 시대가 그만큼 됐으니까 아버지 어머니들은 좀 더 생각을 깊이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공생 · 공심 · 공용 · 공체 · 공식의 의미

질문 : 큰스님 법문을 보면 항상 오공, 즉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알 듯 알 듯 하면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뜻을 좀 쉽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여러분은 그 말을 따라서 말로 배우시려고 하지 말고 뜻으로서 행하시는 데 응용해 보세요, 항상. 그래서 내 거로 만들어야지 말을 말대로만 듣고선 말로만 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전부 다 허망한 겁니다. 여북하면 부처님께서는 "요런 미생물 하나라도 내 몸 아닌 게 하나도 없느니라. 하다못해 벌레 하나도 내 몸 아닌 게 하나도 없느니라." 왜? 거기서부터 쭉 거쳐 올라와서 탁 펴 놓고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레 어머니 아버지 자식 이렇게 됐을 때도 자기가 있었거든, 그 자리에. 그러니까 '아하! 이거 내 부모니 네 부모가 따로 없고, 내 자식 네 자식이 따로 없고, 내 생명 네 생명이 따로 없고, 네 몸 내 몸이 따로 없고, 모두가 이게 공체며 공심이며 공생이며 공용이며 공식이구나.' 그래서 그 뼈 한 무더길 봐도 가르치기 위해서 거기에다 절을 하고 다니셨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따지고 보세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실감이 나는 거지, 그것을 듣지도 못했다면 실감이 안 나요. 들었으니까 알게 됐고, 알았으니깐 그대로 이행하게 되죠. 우리가 들어 보지도 못하고 맛을 보지도 못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몸뚱이 하나를 놓고, 다 눈만 믿고 안 믿는다 이러더라도, 나중엔 코도 믿고, 하하하, 입도 믿고 귀도 믿고 다 믿었다가, 더러더러 믿고 더러더러 안 믿었다가도 '아, 이게 전부 공체가, 공체가 동시에 움죽거리는구나.' 공체가 말입니다. 이 몸뚱이 하나가 동시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몸뚱이 하나의 개체가 전부 동시에 듣고 동시에 보고 동시에 움죽거리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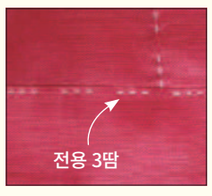
그러니까 모두가 한마음으로서 한 개체로서 이 몸뚱이 하나를 가지고도 이것이 공체인 것입니다. 공체데 항상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 몸뚱이 하나다.' 이렇게요. '내 몸뚱이 하나고 나뿐이다. 외롭다.' 그러지요. 그런데 외롭지 않

☞ 18면으로 계속

만복승복(가사)

{ 특허권자가 승복을 지으면 뭔가 다릅니다!! }

본 승복사는 가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업체입니다. 가사를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더 멋있는 가사를 지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업체입니다. 만복사(승복사)는 미싱 가사가 아닌 수가사식으로 지은 전통 3땀 가사이오며, 타 업체 가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가사의 가로, 세로의 크기가 거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 놓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땀 가사로 발명특허까지 출원하여 많은 스님들께서 좋아하십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만복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라동 23호(제일시장 내)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연꽃칠성촛대



연꽃촛대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잎초찻잔, 연꽃초찻잔 Set

양초 보시 대행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

역삼 Wedding
불자님의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이루어 드립니다
법조계 / 의사 / 약사 / 재력가
사업가 / 공무원 / 교수 / 회사원 등
27년 전통 · 늦은 초혼 전문
책임 있는 컨설팅 해드립니다.



김계숙 원장

◈1:1 집중관리
◈신뢰·정확한 정보
◈성사위주
◈성실상담

대표 02-555-5528 H·P 010-5207-904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5층 11호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첫 번째 건물)

근본 자리에 맡기고 관하는 게 그대로 내가 죽는 방법입니다

☞ 17면에서 계속

아요. 이 몸뚱이 하나 속에도 생명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공체죠. 그리고 또 공체로서 움죽거린다면 공용이지, 어떻게 자기가 개별적으로 하나가 움죽거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같이, 더불어 같이 움죽거리기 때문에 공용이죠. 그리고 공식이고. 그래서 공생 · 공심 · 공체 · 공용 · 공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는 공심으로서 쓰는 것이 지혜고, 공심이 아닌 개별적으로 내가 이렇게 나대로 그냥 마구 말하는 걸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이 몸뚱이도 공체고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더불어 같이 사는 거구나. 더불어 같이 움죽거리는 거구나. 더불어 같이 보는 거로구나. 더불어 같이 먹는 거로구나. 더불어 같이 생각하고 사는 거로구나. 그러니 나라고 세울 게 뭐 있겠나. 내가 혼자 했다고 할 게 뭐 있겠나. 내가 혼자 봤다고 할 게 뭐 있겠나. 혼자 들었다고 할 게 뭐 있나. 내가 산다고 할 것도 없다. 나를 세울 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세상이 모두 공해서 초월해서 돌아간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다, 나다, 내가 한다, 내가 먹었다, 내가 산다' 이런 말이 싹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공생이면서 공심이면서 공체면서 공용하고 있구나. 그리고 공식화하고 있구나.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내가 했다고 하며 나를 세울 수 있겠느냐. 이 공체를 어떻게 나라고 세울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갈수록 마음이 옹졸해집니다

질문 :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의 여유로움이 생길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된 게 갈수록 마음이 더 옹졸하게 됩니다. 사실 생계를 유지하기가 버거워지고 힘들어지다 보니 가족들에게 욕도 많이 하고 욱하고 화도 자주 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게 한마디 일러 주십시오.

답변 :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몽땅 버리지 않으시고 그러십니다. 저 나무들이 자기 뿌리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나무들도 알고, 바람이 부나 비가 내리나 눈이 오나 뜨거우나 하여간에 모든 것은 그 뿌리에서만이 싹을 돕기 때문에 그 나무들은 그냥 편안하게, 어떠한 뜨거운 고가 닥쳐도 그냥 편안하게 거기에 안치하고, 한마음이 돼서 편안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 뿌리를 믿지 못해서 편안히 마음을 갖지 못하시는 거 같아요. 어떤 분은 편안하시고, 어떤 분은 편안치 못하고, 어떤 분은 더 편안치 못하고, 어떤 분은 방방 바깥으로 뛰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 나무들이 말입니다, 모진 바람이 분다고 해서 싹이 아무리 방방 뛰어도 그것은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그 마음 문제입니다. 아무리 나무들이 바람에 휘날리고 폭풍이 불어도 끄떡없이, 그 뿌리는 한데 한마음이 돼서 뿌리를 지키는 마음, 그 뿌리를 깊이 박고 싹을 쪼끔도 흐트러지게 안 하는 그런 그 나무들의 이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 싹과 뿌리가 말입니다. 어떻게들 하고 있나. 바람이 분다고 온통 난리를 칩디까? 아무리 흔들려도 그 뿌리에 매달려서 끄떡없이 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콧방귀 탁 뀌고 그 뿌리에다가 모든 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뿌리에다 맡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니깐 말입니다.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다 맡기고 안 맡기고 간에 거기서 다 뿌리와 싹이 통신이 되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말입니다, 어떻게 마음입니까, 그게? 마음이라는 것이 그냥 불쑥불쑥 만나면 얘기하고 불쑥불쑥 만나면 보고 불쑥불쑥 만나면 듣고 불쑥불쑥 그냥…, 그냥 여여하게 말하시고 듣고 행하시죠. 누구한테 내가 이렇게 행한다 하고 행하시지 않죠. 누구한테 말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말하시죠. 본다고 하지도 않죠. 듣는다고 하지도 않죠. 그럭하고서 그대로 여여하게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여여함이 그대로, 여러분들 그 마음이 그대로, 마음속에서 그렇게 나오는 그 여여함이 그대롭니다, 그대로!

부처님이 왜 부처님이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악과 선을 다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악과 선을 갖추어서 그걸 둥글릴 줄 알기 때문에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32상에 80종호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라도 요만한 거 하나 빼놓지 않고 모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에만 부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다 불성이 있는 겁니다. 그게 자불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마음이 문젭니다. 마음이 때에 따라 화가 나면 욕도 하고 그러죠. 욕도 나오고 그냥 좋은 말도 나오고 거친 말도 나오고 이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냥. 그대로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대로 정상을 그대로 여여한 줄 알라 이겁니다. 만약에 거친 말이 안 나온다면, 선한 말만 나오고 좋은 말만 나온다면 그것은 부처가 아닙니다. 모두가 부처라는 것은 평등공법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법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욕을 한다고 그래서 욕이 업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겁나시죠? 항상 제가 그렇게 해 나왔으니까 좋은 말을 쓰시라고 하고 언짢은 말은 쓰지 마시라고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들이 언짢은 걸 언짢게, 언짢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게 언짢아지는 겁니다, 그게. 참 이해가 안 갈 소리죠.

이게 아니다 기다, 이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부처님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죠. 그런데 '없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러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이 있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말이 어떻게 엇갈립니다.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러면 양편은 다 본래 갖추어진 본연의 자리에 있다는 얘깁니다.

어떠한 짜증이 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떠한 부질없는 용도가 내 앞에 닥치고, 어떠한 게 망하고 흥하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그러죠.

> 항상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거기다 놓고
> 편안하게 마음먹어라.
> 주인이 하는 거를 심부름하는 놈이
> 뭘 그렇게 참견을 하고 걱정을 하느냐.

"항상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거기다가 놓고, 자기는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주인으로 인해서 심부름하고 이렇게 사는 거니까 그대로 거기 놓고 편안하게 마음먹어라. 심부름하는 놈이 뭘 그렇게 주인이 하는 거를 참견을 하고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이러죠.

내 몸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걱정을 해서 되는 게 아니예요. 거기다 믿고 거기다 놔 버려야 돼요. 그냥 믿는다 안 믿는다도 없는 거죠. 본래 자기 뿌리니까. 그 가운데서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 쓰고 밀고 나가는, 물러서지 않고 밀고 나가는 그 마음이 그냥 공법입니다. 공법의 핵심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싶어요

질문 : 스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도 한순간에 천도를 하신다는데, 저희 같은 범부들은 스님처럼 천도는 못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라도 이익이 되고 싶은데 그마저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 말씀 일러 주십시오.

답변 : "길에 지나가다가도 천도재를 한다." 이 뜻은 뭐냐. 천도를 한다는 겁니다. 소나 말이나 돼지나 어떠한 사람이나 가다가 보면 그 속을, 남의 속을 다 아니깐…. 남의 속을 다 아는 것, 타심통도 도가 아니다 이런 것이 뭐냐 하면 타심통을 안다면 즉시 실천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도입니다. 실천 없는 거는 도가 아닙니다.

오신통은 그릇을 만드는 거고 또 우리가 실천은 그 그릇대로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무시하지 마시고, 육으로다가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놓는 거보다도 이 정신계의 참자기…, 자기란 수억겁을 거쳐 온 아주 보배입니다. 그래서 내 몸은 그 억겁을 거쳐 온 그 주인공이, 즉 말하자면 주장자가 주인이고 몸은 그냥 시자인 것입니다. 시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반가워서 악수를 할 때에 마음이 가니깐 손이 덩달아 따라간 거지, 마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손이 악수를 하려고 덩달아 따라갑니까? 그래서 마음이 움죽거리는 것이 전체가, 여러분들이 움죽거리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서 매여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매인 몸은 공했다. 매인 몸이기 때문에 공했다. 찰나찰나 물을 마셔도 내가 마셨단 말을 못 한다. 왜? 이 지구와 같은 이 몸속에 이 한 개체도 생명체들이 얽히고설키고 많이 있음으로써 어떤 것이 먹는다고 할 수 없으니깐 "내가 먹은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냉정히 따지고 보면 그 중생들이 달래서 나는 심부름만 한 거지, 아래로는 중생들의 심부름, 위로는 그 부처님의 시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아래 중생들을 모두 흡수해야 된다' 이러는 거는 조복을 해야 된다, 한마음으로 조복이 돼야 내가 마음먹는 대로 한마음으로 따라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의식들이 다 보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자기 마음을 그대로 천차만별로 보살행을 하게끔 자유권을 줬습니다. 자유권을 준 게 아니라 자기가 자유권을 가졌기 때문에 자유권이 있게끔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딱, 지금 그거를 '어휴! 내가 이거 뭐, 중생인데 이것을 이렇게 허공에 발을 떼어 놓을 때에 떼어 놓을 수가 있나?' 이러지만 우리가 그냥 거기다가 맡기고 관하고 이러는 게 그대로 내가 죽는 방법이요, 내가 함이 없이 하는 방법이요, 둘 아닌 도리를 아는 방법이요, 구경계에 이르는 방법이요, 전부가 아니 되는 게, 아니 하는 게 없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 모습 아닌 게 하나도 없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아닌 게 없고, 내 생명 아닌 게 없고, 공용이다, 공식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건져 주는 데도, 하다못해 물에서 노는 고기 한 마릴 건져도 내가 수많게 화해서 그 고기로도 들어가고 짐승에도 들어가고 사람에게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바로 그걸 건지는 겁니다.

부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음공부 하는 분들에 한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전제를 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점프를 해서 계단을 한걸음에 올라올 수 있다면 강은 못 건너가겠습니까? 강 속은 못 들어가겠습니까? 은산철벽은 못 뚫겠습니까? 삼라대천세계는 못 가겠습니까? 두루 하죠. 덮고도 받치고도 남음이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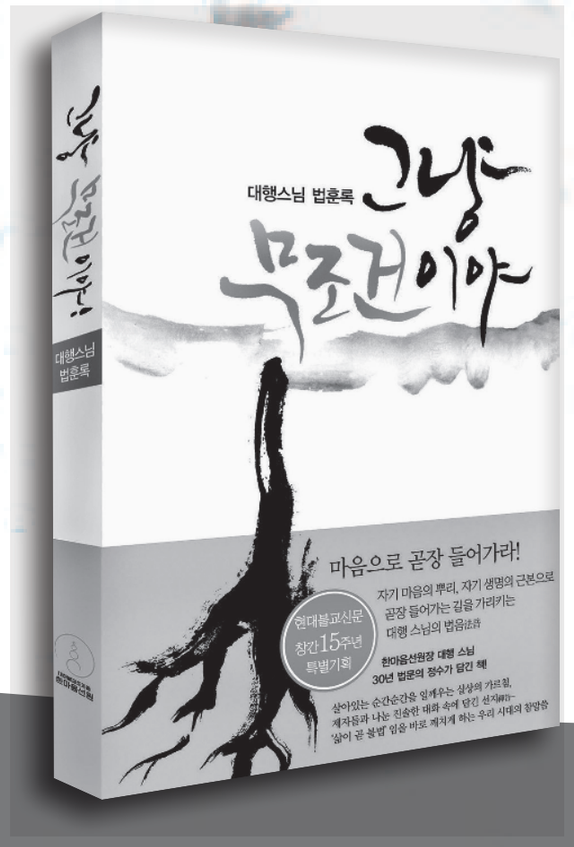
그러니 우리 자체가 이렇게 관하면은 벌써…, 예를 들어 미국에서 기별이 왔는데 "지금 급하답니다." 이러고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친척이 만약에 미국에서 사는데 미국에서 급하게 왔다고 합니다, 기별이. 그럼 어떡해야 되겠습니까? 그쪽의 마음도 이쪽의 마음도 둘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길다 짧다, 악이다 선이다 이거를 전제하고 무조건이었습니다. 무조건이십니다. 우리도 무조건입니다. 이유를 붙이지 않아야 됩니다. '너는 고렇게 얄밉게 했으니깐 넌 그렇게 해도 싸.'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도저히 부처님의 그림자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서 할 때에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직껏 수차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고 실천을 하라고 그랬죠. 이거는 어떠한 거를 거기 집어넣고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인공에다가 그냥 '둘 아닌데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자기 주인공에 관하면 그 주인공으로 그냥 나투게 됩니다. 나투게 돼서 그것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급하니깐 그랬지만, 가까운 데서 그럴 때는 데리고 와서 관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이러면서 가르쳐 줘야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가까운 데 사람은 조금 공부를 가르치는 편이고 또 가깝지 않고 멀리 있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거나 이러면 무조건 줘야 합니다. 아셨죠?

그게 바로 무심 도리요, 바로 공용의 도리요, 공체의 도리요, 공식의 도립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뭐든지 내줄 수 있는 여건이라면 다 내준다 이런 거 말입니다. 내도 내도 줄지 않고 또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수만, 이 허공을 다 집어넣는대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건 체가 없는 까닭입니다. 체가 없는 데다가 체가 없는 걸 넣으니까 이 천차만별의 생명들을 다 집어넣어도 두드러지는 법이 있겠습니까, 어디?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mahamall.co.kr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마하몰



일감 스님의
암각화 기행

기도하는 사람들



손가락이
세 개
네 개, 다섯 개

그저께는
온통 깜깜한 밤하늘
오늘은 별이 총총한 밤하늘

손가락이 세 개든 네 개든
손가락 쫙 펴고,
하늘 향해 기도하는 사람들

그분들 은혜로
지금
우리가 있을까

까잘만, 싸이말루이 따쉬

싸이말루이 따쉬의 특징적인 암각화다. 큰 반달 모자 같은 것을 머리에 쓰고, 손에 북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샤먼일 가능성이 있다. 그들은 손가락이 세 개나 네 개다. 보통 사람과 다른 특별한 신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다.

두 팔을 위로 들어 올린 사람은 샤먼의 도움으로 기도하는 사람인 듯하다. 이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반원형 안의 많은 점들은 미완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잘 보면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표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한 손에 북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있는 반달 모양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 또는 기도 성취를 위해 한 점의 빈틈도 없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깊은 마음을 표현했다고 생각해도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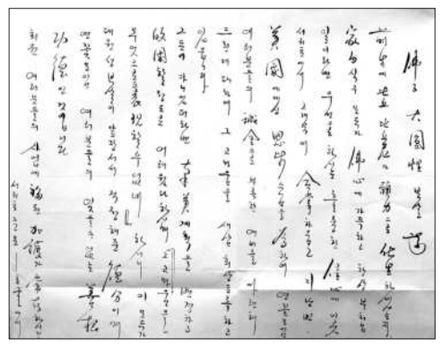
인간의 노력으로 어쩌지 못하는 한계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도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먼 옛날 옛적에 밤하늘을 바라보며 정성으로 기도했을 그분들의 염려와 기도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대원성보살의
선지식 '산중서신'



㉒ 혜인 스님 1

한 스승 함께 모셨던 선지식



〈서신〉

불자 대원성 보살 전

前生(전생)에 比丘(비구) 比丘尼(비구니)가 원력으로 탄생하셨는지 家內(가내) 식구 모두가 불심에 가득하고 항상 부처님 일이라면 우선으로 하시는 훌륭한 信心(신심)에 이곳 서귀포에서 고개 숙여 합장(合掌)하옵고 지난번 미국에 계시는 恩師(은사)스님을 위하여 연꽃모임 여러분들의 誠金(성금)으로 부족한 여비를 마련해 드린 데 대하여 그 고마움을 새삼 회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아니었더라면 남미 계획을 변경하고 귀국할 정도로 어려웠다 하시며 "그 고마움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네" 하시니 이 모두가 대원성보살이 앞장서서 걱정해 준 덕분이며 연꽃모임 여러분들의 잊을 수 없는 善根功德(선근공덕)인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사업에 福(복)된 加護(가호)가 常存(상존)하시길.

서귀포 중문 토굴에서 혜인 스님이

약천사를 짓기 전, 작은 초가집에서 주신 글이다. 스승인 일타 스님이 미국에 가셨을 때 연꽃모임이 마련해 드린 작은 성금을 받으시고 고마웠던 마음을 적어 보내셨다. 그때는 모든 여건이 어려울 때였다. 서로를 돕는 일이 무엇보다 값진 시절이었다. 돌아보면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는 좀 더 서로를 생각했던 것 같다. 그리고 시절이 어려웠던 만큼 모든 것들이 소중했던 것 같다. 그런 시간 속에서 만났던 인연들 모두가 소중하고, 특히나 선지식과의 만남은 그 시절을 살게 한 큰 힘이었던 것 같다. 세연을 끝내고 원적에 든 선지식들과의 지난날을 돌아보는 일은 내게 그 시절만큼이나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이다.

일타 스님의 맏상좌였으며 은해사 조실이었던 혜인 스님은 제주도 약찬사를 중창해 제주도를 대표하는 사찰로 만들었다. 그리고 단양 광덕사에서 64만 평 규모의 세계일화도량 대작불사도 회향하셨다.

45년 전, 내가 30대였을 때 스님을 처음 뵈었다. 스님은 일타 스님의 말상좌였고, 나는 일타 스님의 유발상좌였다. 스님과 나는 서로 다른 경계에 살고 있었지만 같은 스승을 모셨다. 스님과 나는 서로의 경계를 지키면서도 가족처럼 형제처럼 지냈다. 스님은 부산에 볼 일이 있을 땐 일을 마치고 꼭 우리 집에 들러 공양도 하시고, 더러는 묵었다 가시기도 하셨다. 공부가 덜 된 탓으로 나는 스님과 다른 생각을 가질 때가 더러 있어, 불편한 말을 주고받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단단한 인연으로 가는 작은 고비들이었다. 불편함이 지나고 나면 인연은 더욱 단단해졌다. 돌아가시는 전날까지도 함께 이야기했고, 인생의 마지막 인사도 나누었다. 스승인 일타 스님도 내게 전할 말씀이 있을 때마다 혜인 스님을 보내셨다. 혜인 스님은 원적에 드시던 날에도 평소처럼 "우리 스님(일타 스님)께 평생 시봉하고 잘 모셔 준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고 하셨고,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대원성보살, 어른 보살로 잘 모셔야 한다"고 당부하셨다. 모두 그립다.

"길 없는 곳에서 참 생명의 길을 만들어 내며 무시무종으로 이 법에서 지옥 천당을 건설하고 혹 쳐부수기도 하면서 당당히 대우주의 주인공이 되나니. 결코 마르지 않는 샘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의주의 주인이 되지 못하리라"

일생 수행과 포교에 매진했던 스님은 2016년 6월 23일 수선 안거 중 마침내 임종게를 남기고 원적에 들었다. 세수 75세, 법납 62세였다.



1988년 해인사 지족암에서 일타 스님(우측 두 번째), 혜인 스님(좌측 두 번째)과 함께. 우측 대원성보살.

탈종공고

• 사찰명 : 대광사
• 주 지 : 만덕화
•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317-33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대광사
• 법 명 : 법륜 (승번 : 071-0588)
• 주 소 :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317-33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성불사
• 법 명 : 무능 (승번 : 071-0551)
• 주 소 : 전북 완주군 소양면 망표길 291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정토사
• 법 명 : 영운 (속가명 : 김수근)
• 승 번 : 011-1596
• 주 소 : 인천광역시 강화읍 새말길 8번길 15-2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비구니중앙종회의원 정운스님 징계동의안에 대한

전국비구니회의 입장문

대한불교조계종 제219회 정기중앙종회 개원을 앞두고 비구니중앙종회의원인 정운스님에 대한 징계동의안이 제출된 것에 대해 전국비구니회는 참담한 심정으로 우려를 담아 이번 징계동의안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제12대 전국비구니회는 출범 초기부터 명사 추대에 관한 사항을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명사는 비구니들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수행과 지도력의 상징인 만큼 비구니들의 존경과 공의에 의해 모셔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 전국비구니회에 명사추천 권한이 인정되어 명확한 규정과 여법한 절차에 의해 명사가 모셔진다면 점차 무너져가는 비구니계의 위계질서를 바로 세우는데도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비구니 원로 25명은 명사법계의 지원요건과 절차가 반드시 종법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구니종회의원 정운스님이 종회에 '비구니 명사 추천 권한을 전국비구니회에 부여하는 안'을 제출했다가 '전국비구니회가 임의단체'라는 이유로 좌절되자 불교신문의 칼럼을 통해 글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글에서 우리 종단에 대해 '임의단체'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표현이 문제가 되자 정운스님은 공개적으로 '사과의 말씀'이라는 참회의 글을 올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종단 및 종회의원 스님들께 개별적으로 참회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종회에 징계동의안이 발의되었다는 점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정운스님은 그동안 척박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포교에 헌신해왔고, 그 공로가 인정되어 대통령상을 두 번이나 수상하는 등 누구보다 청소년 포교를 위해 남다른 열정을 쏟으며 종단을 빛낸 비구니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실언으로 '종단폄훼자'라는 오명을 쓰고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국비구니회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주시하면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불교에는 아무리 큰 잘못을 범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진심으로 참회하면 자비 문중으로서 이참의 논리와 사참의 방법으로 용서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정운스님의 표현이 분명 지나치고 잘못된 면이 있지만, 본인이 진심으로 참회하였고, 이는 종단과 비구니계의 발전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정운스님에 대한 징계가 실행된다면 비구니에 대해 지나치게 처벌했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평등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단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뜻을 모으고 부처님 사상에 입각해 그 근거를 제시하는 등 사회의 변화를 리드해가는 진보적인 종단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 사람의 실수에 대한 가혹한 징계가 자칫 성차별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일이 벌어질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평생을 올곧게 출가자의 길을 걸어 온 수행자가 한 번의 실수로 평생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징계동의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종도들이 서로 화합하는 제도와 구조 속에서 종단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향해 비구, 비구니가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는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각인되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전국의 비구니스님들에게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종단과 불교의 앞날에 관심의 끈을 놓지 말고 더욱 청정하게 수행 정진합시다. 한국불교의 한 획을 긋는 비구니의 위상을 일구어 나가도록 모두가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불기2564(2020)년 11월 9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